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93호 【루계 제24606호】 주체103(2014)년 7월 12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승리의 신심드높이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당의 령도따라 2014년의 총진군을 개시한 때로부터 반년이 흘러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받들고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천만군민이 총궐기, 총돌격해온 지난 반년은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기상이 약동하고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된 긍지높은 나날이였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지나온 투쟁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더 큰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축전장과 잇닿아있는 승리자의 진군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올해 총진군의 승리의 앞길을 밝힌 전투적기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2014년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시고 올해에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준 강령적지침이였고 온 나라에 대혁신, 대비약의 기상이 나래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비상히 앙양된 열의속에 첫걸음을 뗀 올해의 총진군은 하루하루가 그대로 영웅적투쟁과 자랑찬 위훈의 련속이였다.

상반년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신 선군조선의 정치사상적위력이 남김없이 떨쳐졌다.

원대한 포부와 필승의 신심드높이 올해 총진군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원수님은 마음의 기둥이시고 백전백승의 기치이시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와 같은 신념의 노래들이 시대의 진군가로 높이 울려퍼졌으며 온 나라가 자기 령도자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와 충정으로 끓어번졌다. 어느 초소, 어느 일터에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낮과 밤이 흘렀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 맹렬하게 벌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려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애국적헌신성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올해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였고 난관도 겹쌓였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첫시작부터 기세드높이 내달렸다. 우리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고 승리이라는것이 상반년기간의 투쟁속에서 뚜렷이 실증되였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올해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과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가 창조되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도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사회주의경쟁열풍, 집단적혁신의 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 자립경제의 토대가 강화되였다. 특히 서해어장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3배이상의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 도처에서 년간계획완수자들이 수많이 배출된것은 우리 인민의 각오와 투쟁기세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과학, 교육, 보건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전반적분야에서 세계를 압도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기 위한 투쟁이 고조되고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짧은 기간에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이 근로자들의 따뜻한 생활의 보금자리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호텔, 아이들의 궁전으로 훌륭히 일떠섰으며 청춘거리 체육촌개건공사가 완공된것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게 될 건축물들이 도처에 솟아났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상반년기간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불면불휴의 로고를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를 발표하시고 새해 정초부터 총진군대오의 진두에 서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고 선군조선의 약동하는 기상이 더 높이 떨쳐질수 있게 한 전환적계기로 되였다. 인민군부대들과 국가과학원, 마두산혁명전적지,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에로 끊임없이 이어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는 온 나라에 새로운 비약의 폭풍이 휘몰아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올해 총진군의 승리를 위한 투쟁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열렬한 애국심을 심어주시고 기적창조의 나래를 펼쳐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는 과학이고 승리이며 원수님께서 이끄시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울것도 없고 점령 못할 요새도 없다는것이 올해의 투쟁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더욱더 심장깊이 새긴 철리이다.

승리와 성과에 자만을 모르고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질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는 오늘의 앙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끊임없이 가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고조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신년사과업관철정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공적으로 드세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해의 첫아침에 크나큰 감격과 흥분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세운 올해전투목표들을 다시한번 전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상반년기간에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미진된 부분이 하나도 없게 집행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나가야 한다. 오늘 하다 못하면 래일 해도 된다는 그릇된 사고관점, 오분열도식일본새를 결정적으로 없애고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중요고리로 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제때에, 완전무결하게 집행해나가야 한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도, 나라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경제와 문화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업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철저히 립각하여 진행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조선속도창조, 이것은 올해 총진군에서의 대비약적혁신과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승리와 잇닿아있는 영예로운 투쟁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대속도로 내달리고 그 어디에서나 세계를 압도하는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될 때 우리 당이 내세운 투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고 최후승리의 그날이 앞당겨질수 있다.

우리는 《모두다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에로!》라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질풍같이 내달려야 한다.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지녀야 한다. 누구나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고도 성차하지 않는 강한 일욕심, 조국의 힘찬 전진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나라도 더 많이 찾아하려는 열렬한 애국심으로 심장을 끓여야 한다. 올해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여 어머니당에 승리의 보고를 드리겠다는 충정의 일념, 보답의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적극 구현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지금 인민군군인들은 혁명적군인정신, 단숨에의 기상으로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 기적들을 창조하며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우리는 인민군군인들처럼 당에서 맡겨주는 과업을 최고의 영예로 간직하고 분초를 쪼개가며 생산돌격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견인불발의 투쟁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야 한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대오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힘은 대중에게 있고 성과의 비결은 조직사업에 있다. 지난 상반년기간 서해의 수산기지들에서 례년에 보기 드문 생산실적을 기록할수 있은것도 일군들의 역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일군들의 치밀한 조직사업과 완강한 실천력, 이신작칙의 모범은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떠미는 힘있는 추동력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은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의 성과여부가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이미 세운 단계별투쟁목표에 준하여 집행대책을 주별, 월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어김없이 실천해나가야 한다. 대오를 이끌어나가는 기관차답게 전투현장에 몸을 푹 잠그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기동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전격전, 립체전으로 성과를 확대하며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포성을 계속 힘차게 울려나가야 한다.

각급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로 대중의 앙양된 기세를 끊임없이 고조시켜나가야 한다. 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 수단과 방법을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투쟁, 혁명과업수행에 지향시키고 복종시켜나가야 한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을 집중시키고 참신하고 실효성있는 사상사업으로 총진군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오늘의 보람찬 진군길에서 뚜렷한 삶의 흔적을 새기고 올해를 긍지높이 총화할수 있도록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강도높이 들이대야 한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의 대축전장과 잇닿아있는 올해를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빛내이려는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의 총진군에서 선군조선의 강성번영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나가자.

절세위인들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자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제2의 희천정신창조열풍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조선속도, 제2의 희천정신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현장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 단위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에 의해 지난 6월전투과제를 굴착은 141%, 성토는 140%, 콩크리트치기는 115%로 넘쳐 수행한데 이어 7월에도 언제와 발전기실을 비롯한 대상공사에서 련일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물길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제기일에 완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방대한 올해목표점령을 위하여 세멘트, 목재를 비롯한 자재보장을 확고히 앞세우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보다 구체적으로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은 각 단위들에서 높이 내세운 콩크리트치기목표에 따라 굴착공사를 힘있게 내밀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립지에서의 통나무생산과 수송전투 등을 활발히 벌려 공사성과를 부단히 확대해나가고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현장지휘부와 각 단위 정치일군들은 공사장마다에서 사상의 포문을 더욱 힘차게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면서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고있다.

특히 보천보전투승리기념일을 비롯한 중요계기들마다 우등불모임과 지휘관들의 경험교환회, 보여주기사업 등을 실효성있게 진행하여 건설장마다에서 사상전의 포성이 우렁차게 울려퍼지고 새 기적, 새 기록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도록 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진 맹세 지켜 공사를 본때있게 다그칠 한마음안고 각 단위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고온현상이 계속되는 불리한 속에서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줄기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희천6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평안북도려단에서는 좌안지대로 진격하기 위한 가물막이성토와 굴착공사를 힘있게 다그친데 이어 좌안의 언제기초와 수문기둥, 옹벽콩크리트치기 등을 본때있게 내밀었다. 불과 한달동안에 8 300여㎥의 타입실적을 기록하여 6월계획수행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한 이곳 려단의 전투원들은 앙양된 기세를 늦추지 않고 7월에도 능력이 큰 혼합물생산공정을 만부하로 돌리면서 대대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좌안의 언제수문기둥과 옹벽, 언제비일류부타입에서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평양시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드세찬 공격전으로 희천9호발전소건설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대동강구역, 룡성구역, 보통강구역, 중구역대대를 비롯한 각 대대 전투원들의 눈부신 투쟁에 의하여 8개 언제수문기둥타입을 끝낸 려단에서는 력포구역대대와 대성구역대대를 투입하여 언제다리보제작과 조립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려단에서는 좌안언제공사의 기본공정들이 마무리되는데 맞게 만경대구역대대를 비롯한 여러 대대를 집중시켜 콩크리트타입실적을 최대로 높이면서 발전기실과 방수로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희천5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황해남도려단 돌격대원들이 좌안지대로 언제공사를 확대해나가면서 발전기실공사도 동시에 내밀어 성과를 올리고있다.

희천8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평안남도려단, 희천11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함경남도려단의 전투원들도 6월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이달에 들어와서도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언제와 발전기실공사를 본때있게 내밀고있다.

희천12호발전소건설을 맡은 남포시려단과 태천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전투원들이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며 언제수문기둥과 무넘이구간, 발전기실콩크리트치기를 힘있게 내밀어 6월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7월에도 최대의 공사속도로 내달리며 매일 과제수행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희천3호발전소건설을 맡은 자강도려단에서는 언제와 물길굴, 발전기실과 방수로공사 등 여러 대상의 공사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드는 한편 대형물길굴에서 자동차들의 리용률을 높여 많은 량의 버럭을 처리하면서 높은 공사속도를 보장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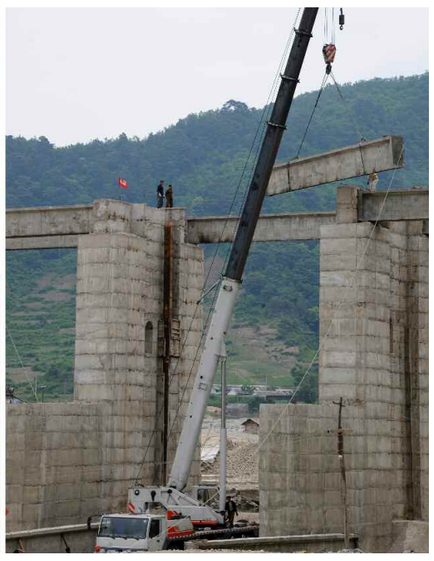
희천4호, 7호발전소건설을 맡은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건설건재공업성려단의 전투원들도 언제수문기둥과 발전기실 등 여러 대상의 콩크리트치기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힘찬 돌격전을 들이대고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7월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 각 단위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에 의해 지금 수백리에 이르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전역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올해의 대고조진군의 전렬에 자기들을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마다에 새기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전체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열의와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공사장마다에서는 립체전, 섬멸전이 벌어지고있으며 집단적혁신의 불길속에 발전소구조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솟구쳐오르고있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6월전투과제를 빛나게 수행한 각 단위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7월에 더 높은 공사성과를 이룩할 비상한 각오안고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류기풍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 평양시려단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훌륭히 개건된다

우리 후대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의하여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날의 조선은 우리 소년단원들의것이며 동무들의 모습에 조국의 래일이 비껴있습니다.

우리 당은 동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만들어 넘겨주려고 합니다.》

지난 5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궁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아이들이 안겨사는 우리 당의 품을 형상한 궁전의 외부를 화강석과 고급건재로 다시 시공하며 모든 시설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그쯘하게 갖추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홀과 복도에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진문헌들을 정중히 모실데 대한 문제와 아이들의 마음속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움터나게 하고 세계를 딛고 올라서겠다는 꿈을 키울수 있도록 내부장식도 새롭고 특색있게 할데 대한 문제 등 궁전개건보수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설계와 자재보장, 건설력량편성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대책들을 일일이 세워주시였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를 주면 열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궁전개건보수에 동원된 조선인민내무군 정창복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지금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하여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한마음으로 군인건설자들은 개건보수전투에 진입한 때로부터 많은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한주일 남짓한 기간에 많은 면적의 정면벽 돌들을 떼내고 미장작업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쳤으며 로대와 드림벽공사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2층 천정공사를 다그쳐 많은 작업량을 해제꼈다.

새로 일떠서는 청사의 기초굴착작업을 며칠사이에 끝내는 성과도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는데 큰 힘을 넣어 많은 량의 골재들을 마련하였다.

현장지휘부에서는 공사일정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기계화수단들을 적극 리용하면서 전투작전과 지휘를 패기있게 진행하고있다. 지휘관들이 앞채를 메고 군인건설자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전투현장에서 벌어지는 화선식경제선동은 군인건설자들을 개건보수전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지금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개건공사가 적극 추진되는 속에 날에 날마다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개건되면 모든 소조실들이 아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훌륭히 꾸려지게 되며 극장과 체육관, 수영관도 그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게 된다. 또한 지방의 학생소년들이 숙식할수 있는 합숙도 건설되게 된다.

본사기자 공로혁

수천m의 방조제 건설

룡매도간석지건설장에서

룡매도간석지건설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황해남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속에 방조제건설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였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상반년기간에 12만 5 000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7만여㎥의 장석공사를 진행하여 수천m의 방조제를 건설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기업소일군들이 공사장마다에서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면서 건설자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일군들은 주타격방향을 4호중간방조제건설로 정하고 여기에 모든 로력과 기계화수단을 총동원하였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일군들은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갔다.

특히 밀물과 썰물로부터 방조제가 씻겨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면서 돌채취를 운반에 확고히 앞세우도록 하였다.

또한 굴착기를 대담하게 바닥에 내려놓고 건설을 통이 크게 내밀면서 채석장에서 자동차들의 머무름시간을 줄여 운반수단의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였다.

건설자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 숭고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맵짠 바다바람과 강추위속에서도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였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간석지건설자들은 한달동안에 3만여㎥의 토량을 처리하여 1 000여m의 방조제를 건설하였으며 단 20일동안에 수만㎥의 장석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수천m의 4호중간방조제를 완성함으로써 6구역건설을 제기일에 완공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4호중간방조제건설을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낸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그 기세로 힘찬 전투를 벌렸다. 걸음마다 난관이 앞을 막아나서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굴착기와 불도젤, 자동차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여 뛰였다.

기계화사업소, 운수작업반의 초급일군들과 운전사들이 공사의 주타격방향을 맡아 본때를 보이였다. 자동차운전사들은 쉴새없이 흙과 돌을 운반하여 공사실적을 지난 시기보다 훨씬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굴착기운전공들은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운반실적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양화간석지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막돌채취와 운반, 장석공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켰다. 채석장의 건설자들은 합리적인 굴착방법과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굴진을 맡은 주택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도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건설자들은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진행하여 그날계획을 1.5배로 넘쳐 수행하였다.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룡매도간석지건설을 완공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본사기자 박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일당백강군을 키우신 강철의 령장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80(1991)년 12월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5(1966)년 2월

←해군함선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0(1971)년 4월

☆

☆ ☆

→미제침략군 대형정찰기를 단방에 요정낸 비행기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0(1971)년 12월

인민군병사의 무장상태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4(1965)년 5월

군인들이 다루는 무기의 무게를 가늠해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8(1969)년 4월

로농적위대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2(1973)년 12월

해병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9(1970)년 5월

군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땅크병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72(1983)년 4월

정 론

영원한 태양 우리 수령님

어느덧 20년세월이 이 땅에서 흘렀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두번 지나고 옹근 한세대가 성장한 그 20년을 두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할수 있는것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20년전, 영생의 진리를 안은 구호를 피눈물속에서 심장에 새기던 그때 오늘과 같은 현실을 내다본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우리모두의 20년 체험이 그것을 말하고있다. 한없는 긍지로 부풀고 승리의 패감으로 충만되여온 우리 천만의 심장들이 그것을 말하고있다.

김일성동지, 그이는 영원한 우리의 태양이시다.

1

영원한 태양 우리 수령님,

너무도 귀에 익고 너무도 입에 오른 말이다.

이 나라 남녀로소가 다 이 말과 함께 20년을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하며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날은 보통날이였다.

사람마다 례사로이 자기 일, 자기 생활에 파묻혀있던 두달전의 어느 토요일, 이날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6월 유평혁명사적지를 찾으시였던 때를 돌이켜보시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200리길을 달려 새벽 3시경 유평땅에 당도하신 수령님께서 집주인의 단잠을 깨울가봐 념려하시며 논밭에 있는 낟알짚을 가져다 깔고 앉으시여 한시간반이나 기다리셨던 이야기도, 최고사령부를 보위하겠다고 달려온 전사들을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전선으로 떠나보내신 사연도 되뇌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절절하신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정말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세상에 없다. …

수령님께서는 잘 꾸려진 집무실도 아니고 수수하고 추녀낮은 북부산골의 농촌집에서 조국해방전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탁월한 사상과 전법을 창조하시였다. …

새 세대들이 이런것을 잘 알게 해야 한다. 수령님의 력사를 다 깊이 알게 해야 한다. …

《우리 수령님!》, 이 부름을 자나깨나 마음속에 안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이 그대로 안겨오는 뜻깊은 말씀이다.

그렇다. 정녕 다 알기에는 너무도 심원한 세계가 바로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이다.

새겨볼수록 지난 20년세월은 우리 모두가 **김일성**동지를 더욱 새롭게 알고 그이의 위대성에 매일, 매 시각 탄복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속에 살아온 나날이였다.

영원한 태양 우리 수령님,

마음속의 진주보석을 꺼내듯이 이 부름을 터치는 우리의 머리우에 7월의 하늘이 있다. 그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우리의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수령님 한평생의 하루하루는 우리의 생활속에 새로운 의미, 새로운 느낌을 꽉 채운다.

산간벽촌을 찾아가도 아래목에야 주인이 앉아야지요라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허물없이 웃목에 앉으시여 환하게 웃으시던 그 자애로운 영상이 눈앞에 뜨겁게 안겨온다.

어느 협동조합의 모임에 참가하시여 한해에 한사람당 벼 대여섯가마니면 된다는 농민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 정도면 적다고, 군대나갔던 아들이 제대되여올수도 있고 시집간 딸이 나들이도 오겠는데 그러면 부모보러 오는 자식들에게 쌀을 가지고 오라고 하겠는가고 하시던 친근하신 음성도 귀전에 쟁쟁 울려온다.

누구나 나를 보고 이제는 편히 쉬시오, 심려를 놓으시오라고 말하지만 그럴수가 없다고,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것이 퍽 힘든 일이지만 나에게는 더없는 보람이고 기쁨이고 락이라고 하시던 우리 수령님이시다.

그이를 우러러 이 땅의 인민은 태양이라 불렀다.

그이를 못 잊어, 정녕 못 잊어 이 땅의 인민은 영원한 태양의 노래를 부르고있다.

우리 인민만이 아닌 온 겨레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경모하며 잊지 못하고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태양으로 오늘도 높은 칭송을 받고계신다.

영원한 태양 우리 수령님,

인민의 심장을 꽉 채우고있는 이 부름은 시작만 있고 끝은 없는 가장 열렬한 정이다. 인민의 생활속에 살아숨쉬는 이 부름은 가장 위대한 인간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분출이며 가장 성스러운 영생찬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시다.》

그이는 존함그대로 태양이시였다.

한세기가 그이의 태양존함으로 불리웠다. 벗들도 적들까지도 그이의 업적과 위대성을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였다.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태양이라 한다. 태양이 영원하다는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민이 대를 이어 심장속에 간직한 《우리 수령님!》, 이 부름이다.

우리스스로도 놀라지 않을수 없다. 세월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여도 변함이 없을뿐아니라 더 생생하게 살아숨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체험하게 되는것이다.

우리 수령님,

불러볼수록 새롭게 안겨온다.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한번 보고 두번 보아도, 열번, 스무번을 보아도 우리 수령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는 감탄을 다시, 또다시 터치게 한다. 100권이 넘는 《인민들속에서》를 한페지한페지 읽을 때면 어제날의 이야기로만 안겨오는것이 아니라 우리 수령님께 귀속말로 진정을 아뢰이기도 하고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기도 하며 수령님과 늘 정을 나누고있는것만 같은 느낌에 절로 격정이 솟구치군 한다.

항일빨찌산 김대장의 체취와 자욱이 어린 백두의 혁명전구들을 편답하느라면 우리 수령님께서는 정말 담대하시고 령활무쌍하시였구나 하는 탄성이 터져오르고 수령님 다녀가신 공장과 농촌의 곳곳을 돌아볼 때엔 어쩌면 그렇게 다박다식하실가, 어쩌면 이렇게도 세심하고 인자하실가 하고 머리가 숙어지고 가슴이 뜨거워만진다. 자자구구가 그야말로 통속적이고 뜻이 깊은 **《김일성전집》**의 갈피갈피를 번질 때면 수령님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심과 용기가 새롭게 솟는것을 어쩔수 없다.

우리의 20년이 그렇게, 줄곧 그렇게 흘러왔다.

온갖 어지러운 세상풍파속에서도 제할 말을 다하고 스스로 내세운 희망의 목표를 향해 제힘으로 꿋꿋이 나아가는 자신을 의식할 때면 인민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키워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 주체사상의 빛발에 눈앞이 더욱 환해지는 우리들이다. 수령님께서 천교령의 눈보라속에서 지어부르신 **《반일전가》**의 구절구절에서 강철의 신념과 의지를 받아안으며 우리는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련도 용감히 이겨냈다. 수령님 추켜드셨던 백두산총대로 우리의 생명인 조선혁명의 혈맥을 굳건히 이어왔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를 떨치였다. 세기의 언덕을 넘어 더 굳건해지고 더 아름다와진 우리 일심단결의 대화원에도 위대한 수령님 품속에서 알게 된 천만이 동지로 사는 희한한 삶의 멋이 넘치고 강성국가건설의 진격로우에 눈부시게 솟구쳐오른 모든 창조물에도 수령님께서 이 땅우에 불러오신 천리마의 억센 기상이 기적의 영웅군상으로 뜨겁게 안겨온다.

너무도 많은것이 변하고변한 20년세월속에 매 순간순간 완전히 새롭게 받아안게 되는 우리 수령님의 력사, 우리 수령님의 세계이다. 우리 수령님의 해빛같은 미소, 친근한 음성, 자애로운 안광, 따뜻한 체취, 잊을수 없는 자욱자욱, 이 모든것이 오늘도 인민의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다.

오늘 우리 생활의 모든것, 우리 몸가까이의 모든것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느라면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수령님과 결부되여있는 그 사실이 눈물겹게 뇌리를 파고든다. 《우리 수령님의 혁명사상》, 《우리 수령님의 유훈》, 《우리 수령님의 리상》, 《우리 수령님의 념원》, 《우리 수령님식대로》, 《우리 수령님께서 보신다면》, 《우리는 수령님의 후손들》…

이것이 바로 영원한 태양의 세계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힘주어 말하게 되는 우리의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이 아니고 무엇인가.

영생은 추억이라고, 영생은 그리움이라고 말해왔다.

물론 옳은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첨가하고싶다. 우리들자신이 20년세월 체험해온 엄연한 진실로 영생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싶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투쟁을 이끌고계신다. 우리의 태양 **김일성**동지는 영생하신다.

지금껏 말해왔다, 태양은 영원하다고.

오늘도 우리는 말하고있다, 이 조선에서 태양은 영원하다고.

바로 이 말에 또 하나의 심원한 세계가 있다. 심장을 세차게 흔드는 깊고 진한 진리가 있다.

7월의 오늘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의 마음은 조선의 심장인 수도 평양의 만수대언덕으로 끝없이 흐르고있다.

붉은꽃 정히 안고 만수대언덕에 오르니 두분의 태양께서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반겨맞으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함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앞에 서계신다.

1994년 7월로부터 2014년 7월까지,

그 20년을 돌이켜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한분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신다.

그이 계시여 수령영생위업이라는 새로운 말을 우리가, 온 인류가 알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 령도아래 우리는 수호와 승리, 비약으로 영광스러운 년대기를 아로새기며 태양의 영원함을 말로만이 아니라 현실로 력력히 체험하게 되였다.

우리 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잃고 피눈물속에 몸부림치던 그 나날로부터 어언 20년, 력사의 이 한 구간을 거슬러보느라면 위대한 장군님 생각에 눈시울이 젖는다.

영원한 태양 우리 수령님의 력사가 순간도 멈춤없이 흐르게 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다.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그대로 이으시였고 수령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길을 따라 방선초소들과 일터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유훈관철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께서만은 알고계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인민의 심장속에 억척의 신념으로 굳건하고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며 수령님의 어버이사랑이 인민에게 변함없이 따사로이 안겨질 때 그것이 곧 수령님의 영생이고 태양의 영원함이라는것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잘 알고계시였다.

력사에 묻노니, 너의 갈피에 피눈물의 해로 기록된 1994년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이 어리여있는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진두에 서신분이 뉘시였더냐.

우리 장군님 아니시였다면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모시고싶은 이 나라 인민의 강렬한 념원이 어떻게 성취될수 있었으랴. 우리 장군님 아니시였다면 그 뉘가 떼거리로 달려드는 원쑤들을 자주와 선군의 보검으로 물리치고 수령님 한평생의 유산이고 인민의 생명인 사회주의를 불패의 보루로 수호할수 있었으랴.

그이 계시여 이 땅에 드리웠던 검은 구름은 가셔지고 태양의 빛과 열, 인력은 인민을 변함없이 키우고 보살피며 이끌어주었다.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침략책동을 정의의 총대, 선군의 보검으로 짓부셔버린 사회주의수호전에서의 련전련승은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 강철의 령장 **김일성**대원수님 력사의 위대한 계승이였다. 대국들의 각축전의 희생물로 신음하였던 민족의 력사에 영원히 결단을 내리며 첫 인공지구위성이 날아오르고 핵보유국의 장엄한 뢰성이 지구를 진감하는 강국의 력사가 창조되던 때 우리는 그것이 다름아닌 우리 수령님의 자주로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의 승리임을 긍지높이 확신하였다. 나라의 국토가 사회주의땅답게 면모를 일신하고 조상대대로 물려오던 하늘농사의 숙명에 종지부를 찍으며 자연흐름식물길이 뻗어가고 옹근 한개 군면적의 날바다가 옥토로 전변되는 꿈같은 현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승리, 대자연개조방침의 승리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념원과 리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돌파구를 열고야말 굳은 의지를 안으시고 한몸을 깡그리 불태우시며 초강도강행군길을 걷고걸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이의 뒤를 따라 천만군민이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창조한 모든 세기적인 기적들을 격동없이야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최첨단돌파의 CNC바람, 사회주의백과락원,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

우리는 잊지 않고있다. 쏟아져나오는 주체비날론을 가슴에 소중히 안으시고 금수산태양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리러 가자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엄하신 영상을.

그이는 증명하시였다. 태양의 위업이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빛나는가를 연설로써가 아니라 위대한 생의 마지막박동까지 깡그리 바쳐 쌓으신 고귀한 업적으로 력사와 세계앞에 증명하시였다.

반만년사의 기적만으로 다 말할수 없는것이 우리의 20년에 있다.

적들이 그렇게도 와해되고 흩어지기를 고대했던 인민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세계앞에 서있는가.

이 세상에 당할자 없는 단결되고 용감한 인민이 력사의 한복판에 서있다. 제국주의와의 판가리대결전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길에서 더 강의해지고 배심든든해졌으며 더욱더 슬기로와지고 문명해졌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갈줄 알고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으로 간직하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켜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 백절불굴의 투사들이다.

위대하다고밖에 달리는 말할수 없는 이 현실을 놓고 이야기할것이 너무도 많다. 그 모든것을 총괄하는 하나의 진리를 오늘 우리는 지나온 20년세월과 더불어 말할수 있다.

자연계의 태양이 영원함은 그끝을 알수 없는 빛과 열, 인력에 있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태양의 영원성, 절세위인의 영생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에 있다.

력사에 또 하나 물어보자.

너의 갈피에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기록되고 그를 이끈 수령들이 출현하여 몇세기가 흘렀더냐. 그 력사속에 우리의 대원수님들과 같이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수령으로 간직되고 영원한 태양이 되여 인민을 이끌어준 그런 수령이 있어보았던가.

그러면 력사는 대답할것이다. 수령의 위업의 빛나는 계승이 곧 인민의 태양의 영생이라고.

그렇다. 우리 장군님 자신을 깡그리 불태우시며 안겨주신 그 위대한 빛과 열이 우리 수령님의 영생이였고 인민의 태양의 빛과 열이였다.

력사상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혁명가의 한생을 주체100년대의 뿌리로 묻으시고 인민의 첫 수령이신 어버이수령님처럼 단 한줄기의 그늘도 없는 영원한 태양의 미소를 남기신 우리 장군님.

우리가 수령님의 노래와 함께 장군님의 노래를 부르고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에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덧얹으며 7월의 언덕에 오른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영원한 태양 우리 수령님,

심장에 새겨안는 그 부름속에 승리, 승리라는 말이 메아리쳐온다.

이 땅에 변함없이 흐르는 **김일성**동지의 력사, 그것은 무궁무진한 백전백승으로 빛나고있다.

《우리 수령님!》,

어제도 이겼고 오늘도 이기며 래일도 이길것이라는 인민의 신념이 이 부름에 어려있고 지나온 20년에 이어 앞으로도 영원히 수령님 세워주신 인민의 나라를 천만년 부강케 할 굳은 맹세가 이 부름에 실려있다.

수령님 따라 시작한 우리 혁명이 장군님 따라 승리만을 떨쳐온것처럼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기어이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리라.

7월의 하늘아래서 이 땅의 천만군민은 이렇게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우리 수령님이라는 부름처럼 우리 원수님, 이 부름을 간직한 인민의 신심은 하늘에 닿아있다.

얼마나 행복한 우리들인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같은 미소를 뵈옵는 첫 순간에 우리는 그이께서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과 꼭같으신 백두산의 아들, 인민의 령도자이심을 알아보았다.

나라의 방방곡곡에 새겨져있는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사랑의 이야기들을 전설처럼 외우던 병사들과 인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꿈같이 만나뵈온 행복감에 도취하여 기쁨에 웃고운다. 화선진지에서, 자기의 은빛날개옆에서, 땅크포탑과 잠수함사령탑에서, 기대앞에서, 경기장에서, 궁전같은 병원에서, 새로 받은 고급살림집에서, 영광의 대회장에서…

그 모든것이 이 땅에서 례사롭게 펼쳐지는 하루하루의 현실이며 수령복, 태양복을 누리는 인민의 밝은 모습이다.

불과 2년 남짓한 사이에 우리는 온몸으로 절감하였다. 우리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어떻게 이어지고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셨던 날들에 영원히 살고싶은 열망이 어떻게 꿈아닌 현실로 되는가를.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페지가 조국청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졌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주체의 최고성지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충정과 불멸의 헌신에 떠받들려 세상에 둘도 없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훌륭히 꾸려지고 금수산태양궁전이라는 성스러운 이름으로 명명되였다. 수령영생위업수행에서 이룩된 모든 고귀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보다 높은 단계에로 완성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수령영생의 법전 금수산태양궁전법이 채택발효되였다.

영원한 태양의 력사는 우리의 마음속만이 아닌 매일의 생활속에서 흐르고있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대를 이어 더더욱 소리높이 울려퍼지는 우리의 생활이다.

태양의 귀중함을, 태양의 위대함을 세기와 세대를 이어 체험해오는 우리들이다. 그래서 더 행복하고 더 눈물겹다.

《우리 원수님!》,

《우리 수령님!》, 그 부름처럼 자나깨나 심장으로 터치는 정깊은 부름이다.

어쩌면 그리도 다심하고 인자하실가, 어쩌면 그리도 소탈하고 너그러우실가, 어쩌면 그리도 사려깊고 친근하실가 하고 속삭이는 인민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꾸밈도 가식도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 따뜻이 하여주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모르던 육아원, 애육원들을 찾고 또 찾으시는 그이의 인자하신 모습을 우리는 눈물속에 보고 또 보았다.

소년단대회장에서, 야영소에서, 유치원에서, 아동병원에서, 섬마을에서 그이의 넓은 품에 안겨 눈물짓던 이 나라의 아이들을 보라. 아버지의 옷자락인들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매여달리고 낳아준 어머니의 품인들 그렇게 시름없이 안겨 행복에 겨워하겠는가.

궁궐같은 새 집에 보금자리를 편 로동자, 교육자가족들과 허물없이 한상에 앉으시여 축배를 부어주실 때에도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하기에 인민은 그이께서 취해주시는 조치들, 그이의 말씀들, 그이께서 걸으시는 현지지도자욱을 따라서며 《우리 원수님!》이라고 목메여 웨친다.

원쑤들에게는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시는 백두산호랑이의 기상을 우러르면서, 인민의 존엄과 안녕을 지켜 자그마한 목선에도 주저없이 오르시는 사랑의 장정을 보면서, 흙먼지 날리는 건설현장과 물고기비린내 넘치는 랭동창고에서 그렇듯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뵈오면서 이 땅의 인민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인민은 매혹되여 스스럼없이 따른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궤도우에 승승장구의 기적소리만을 울려주시는 우리 원수님,

사랑으로 안아 키워주고 정으로 이끄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우리는 원쑤들의 최후발악이 어떻게 짓부셔지고 우리의 최후승리가 어떻게 마중오는가를 온몸으로 느끼고있다.

시대의 발전과 함께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 더 풍부화되고 창조와 건설의 양상과 높이가 개선되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의 기초로 되고 중심으로 되는 근본원칙,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 인민이라는것이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우리 원수님의 투철한 인민제일주의세계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평생을 쥐여짜면 인민인것처럼 우리 원수님의 모든 사색과 심혈,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 로고와 헌신을 다 들여다보아도 오직 인민뿐이다.

인민의 아들로 한생을 살리라는 그 필생의 사명도,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대를 이어 해빛으로 이어가리라는 그 억척의 맹세도, 천만대적 덤벼들고 폭풍사나와도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가고갈 그 신념과 의지도 계승되고있다. 내 민족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불같은 정신도 오직 수령님, 장군님 그대로이다.

이민위천의 계승이야말로 백전백승의 계승이다.

인민의 태양 우리 원수님!

멀리서만 뵈워도 만시름이 풀리고 온넋이 깨끗이 정화되는 이 순결의 세계, 떨어지면 이 세상의 전부를 잃은것 같아 심장으로 그리고 또 그리는 순정의 세계, 한번만 가르치심을 받아도 온 우주를 받아안은것처럼 앞이 확 트이고 용기가 백배로 샘솟는 이 희열의 세계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의 존엄이며 승리이다.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은 바로 이 영광에서 움터나는것이고 시련이 겹쌓여도 승리만을 굳게 믿는 신념과 락관은 바로 여기서 분출하는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물려주신 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승장구를 위하여, 대원수님들의 유훈이고 리상인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한몸바쳐 싸우는 영예와 보람은 이러한 행복에서 오는것이다.

백두의 절세위인들을 따라 우리가 이룩한 모든 승리가 우리의 래일앞에 제기하는 요구가 있다. 그것은 수령의 위업은 사상의 계승, 정신의 계승이며 그 리념과 기상이 반드시 현실화되여야 한다는것이다.

100여년의 주체년대기우에 **김일성**동지의 혁명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이 위대한 기치로 빛나고있다. 세기에 떨치는 태양민족의 억센 기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정신에 원천을 두고있다.

다시한번 새겨보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11월 삼지연을 찾으시여 하신 간곡한 말씀을.

우리의 새 세대들이 백두의 칼바람을 맞아보아야 한다. 주체혁명위업이 완수될 때까지 백두산답사길을 걸어야 한다. …

우리 수령님의 혁명정신이 살아있으면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이 땅우에 줄기차게 흐른다. 우리 수령님의 혁명정신이 드팀없이 계승되면 그것이 곧 백전백승이고 태양의 영생이다.

수령님의 혁명정신, 여기에는 모든것이 다 있다.

혁명의 길에서 3대각오를 장약해주는 철석의 신념도 여기에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원히 한길을 갈 동지애의 노래도 여기에서 울려오며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칠 사생결단의 기개도 여기에서 샘솟는다.

혁명정신이 식으면 혁명의 길도 끝난다.

대를 이어 고수할만 한 정신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오늘의 세계에서 자기의 존엄도 지킬수 없고 자기의 미래도 담보할수 없다. 어제날에 혁명가였어도 오늘의 혁명정신에 변질이 온다면 우리 수령님의 후손, 우리 장군님의 전사, 제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고 이 시대에 살 권리가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르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그 가슴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꽉 채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정신으로 태양민족, 영웅조선의 억센 기상을 떨치자!

이것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이,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이, **김정은**원수님의 전우, 동지들이 가야 할 혁명의 천만리를 내다보면서 더욱 굳게 다지는 맹세이다.

위대한 혁명정신이 우리 세대의 피를 끓여주고있다.

생눈길을 헤쳐가는 불굴의 개척정신, 인민에게 의거하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나가는 투철한 복무정신, 가장 엄혹한 조건에서도 가장 원대한 리상을 반드시 실현해가는 견인불발의 공격정신,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한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단숨에의 창조정신이 천만의 심장을 달구어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혁명정신으로 충만된 계승자들의 대오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파도쳐흐른다.

7월의 뜨거운 하늘을 우러르니 2년전 4월의 잊을수 없는 충격이 거세찬 메아리로 심장을 쾅쾅 울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는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이였다. 백두산혁명강군의 최정예대오들이 정렬하고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갖춘 기계화종대들이 늘어선것도 놀라운 장관이였다. 하지만 광장을 꽉 채운 장병들과 시민들만이 아닌 온 나라, 온 세계를 깜짝 놀래운것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축의 단상에 높이 오르시여 하신 축하연설이였다.

우리 수령님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성스러운 광장에서, 20년전 우리 장군님께서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고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던 그 연단에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앞에, 세계앞에 첫 연설을 하신것이다.

젊음이 넘치신 그이께서는 온 우주를 울리는 위인의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번영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준 력사입니다. …

선군혁명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민족자주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나라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

우리의 원수님께서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확언하신 조선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

총검을 비껴든 병사들도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그이의 연설에 힘껏 호응하였다. 기적창조의 자랑을 안고 경축의 광장에 달려온 당원들, 근로자들도 사회주의부귀영화의 밝은 앞날을 그려보며 격정의 눈물속에 그이를 우러렀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이라고 하시며 우리의 천만군민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은 이렇게 결속되였다.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는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기가 휘날릴것이며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추동할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원한 태양으로 영생하심을 이 나라 천만군민앞에, 전세계 진보적인류앞에 움직일수 없는 현실로 펼쳐보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의 첫 연설을 무한한 격정속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속에 숭엄히 듣는 사람들속에는 그 잊을수 없는 1994년 이 땅우에 생을 받아안은 피눈물세대의 병사들, 대학생들, 로동청년들도 있었다.

경애하는 우리의 최고사령관께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새 세대 계승자들과 만나신 력사적인 순간이였다.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앞에, 민족앞에, 세계앞에 영원한 태양의 력사가 맞이하게 될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신 환희와 격정의 시각이였다.

오늘의 이 7월에 2년전 4월의 충격을 다시 말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의미심장한 선언이 있다.

영원한 태양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우리 원수님과 우리 인민은 사상도 하나, 뜻도 하나, 정도 하나, 삶과 투쟁도 하나임을 온 세계앞에 보여주었다.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위대한 혼연일체,

우리는 이 혼연일체로 수령님의 영생, 장군님의 영생을 받들어올리고있다. **김일성**조선에서 태양의 력사는 영원히 흐르고있다는것을 위대한 혼연일체로 력사앞에 실증하고있다.

세계여, 보라.

영원한 태양을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영광의 세대가 또다시 안아오게 될 조선의 새 력사를 보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은 영원한 태양민족으로 존엄떨칠것이며 태양의 빛나는 계승은 조선의 천만년 미래를 담보할것이다.

천만군민이여,

우리의 태양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고 우리의 운명 **김정은**원수님을 하늘땅 끝까지 따르자.

태양의 나라—**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조선이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영원히 변함이 없게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한몸 다 바쳐나가자.

조국이여, 인민이여, 앞으로!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을 찾아뵙고 우리 원수님과 함께 최후승리의 보고를 드릴 그날을 향하여!

한 경 철, 김 철 혁

이 땅에 수놓아진 사랑과 헌신의 자욱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하리

그 업적 길이 전하라, 천지개벽된 백두삼천리벌이여!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굴지의 감자산지로,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고장으로 그 이름 자랑높은 대홍단!

감자농사혁명의 불길높이 나날이 흥해만 가는 대홍단군의 눈부신 현실을 생각할수록 지금으로부터 60년전 숭고한 애국의 의지를 안으시고 백두삼천리벌에 개척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거룩한 발자취를 가슴뜨겁게 더듬어보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홍단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뜻깊은 곳입니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한해가 채 못되던 주체43(1954)년 7월 9일,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의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북방의 험산준령을 넘고넘으시여 국영5호종합농장(당시)을 찾으시였다.

그날은 이른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일군들은 비가 멎은 다음에 위대한 수령님을 포전에 모시려고 하였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비가 멎을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수 없다고 하시면서 곧장 포전으로 향하시였다.

드넓은 포전에서는 보리며 감자포기들이 백두고원의 바람결에 설레이고있었다.

비내리는 포전길을 앞장에서 걸으시며 곡식들이 한창 자라고있는 광경을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농사를 지을수 없다고 하면서 종합농장을 없애자고 하는데 사실 농사를 지을수 없겠는지 땅을 좀 파보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삽을 가져오라고 이르시였다.

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가 땅을 파겠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파보겠다고 하시며 손수 삽을 드시고 한삽 또 한삽 땅을 파헤치시고 토양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시였다.

이윽하여 자리에서 일어서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없이 무연하게 펼쳐진 벌을 바라보시였다. 그러시는 우리 수령님의 안광에 근엄한 빛이 어려있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부대를 이끄시고 무산지구에 진출하시였을 때 이곳에서 부대기를 일구며 힘겹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정상을 가슴아프게 여기시며 앞으로 조국을 해방하면 백두산일대의 넓은 고산지대를 개간하고 농민들이 기계로 헐하게 농사를 짓게 해주리라 결심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 최고사령부의 작전도앞에서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설계하시며 백두대지에 대규모종합농장을 창설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그런데 백두산기슭에 본보기농장이 일떠서는것을 달가와하지 않고있던 종파분자들이 이곳은 땅이 척박하여 농사를 지을수 없다고 하면서 갓 일떠서기 시작한 종합농장을 없애려고 음으로양으로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었으니 어찌 용서할수 있단 말인가.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확신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부식층이 12㎝가량 되고 그밑의 갈색토층까지 합치면 15㎝ 되겠는데 이만한 땅이면 농사를 지을수 있겠습니다.

백두고원에 울려퍼진 이 명철한 가르치심은 항일혁명선렬들의 뜨거운 피가 스며있는 이 땅, 영웅전사들이 목숨바쳐 지켜낸 조국땅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지상락원을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절세의 애국자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분출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개 군의 경지면적과 맞먹는 이 종합농장의 땅은 결코 적은것이 아니라고, 일부 사람들이 여기 땅은 부식토층이 얇아서 농사를 지을 전망이 없다고 하는데 거름을 많이 내여 토지를 개량하면 농사를 계속 잘 지을수 있다고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보다 휘황할 백두고원의 래일을 확신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합농장을 고산지대의 현대적인 알곡 및 고기생산기지로,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본보기농장으로 꾸릴데 대한 문제들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길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부문 지도일군 및 함경북도, 연사군, 국영5호종합농장(당시)책임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이렇게 결론하시였다.

오늘 국영5호종합농장을 돌아보니 농사도 괜찮게 되고 농사일을 기계화할수 있는 조건도 좋습니다. 이 농장은 우리 나라에서 규모가 크고 전망이 좋은 농장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도일군들은 농사가 잘되지 않기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으므로 농장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규모를 축소하여 시험농장으로 전환시키자고 하였습니다.

오늘 현지에 와서 료해한데 의하면 국영5호종합농장을 규모를 축소하여 시험농장으로 만들거나 페지할것이 아니라 더 확장하여야 하겠다는 결론을 얻게 되였습니다.

백두삼천리벌의 개척의 새 력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지꿎게 내리는 고원의 찬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몸소 삽으로 땅을 파보시며 백두삼천리벌의 전변의 새 력사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

진정 우리 수령님께서 대홍단군에 거룩한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며 수수천년 잠자던 백두고원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일떠세울 웅지를 안으시고 하신 그날의 말씀은 백두삼천리벌의 천지개벽을 알리는 뢰성이였다. 절세의 애국자의 위대한 선언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인가 사람들은 내가 대홍단의 새 력사를 창조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그 개척자는 우리 수령님이시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력사의 그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종합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자꽃이 피여난 포전을 바라보시며 넓은 대지가 펼쳐져있으니 마음이 흐뭇하다고, 가을이면 이 벌판에 감자산이 솟아날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어느덧 60년세월이 흘렀다.

오늘 대홍단군은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끝없이 넘쳐나는 사회주의리상촌, 세계적인 감자산지로 전변되였다.

대홍단군에 펼쳐진 이 자랑찬 현실은 백두대지에 위대한 수령님의 념원을 활짝 꽃피우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과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백두삼천리벌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로, 살기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리실 결심을 안으시고 대홍단군이 감자농사에서 전국의 앞장에서 나아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대홍단군에서 감자농사혁명의 포성이 울려퍼지고 대홍단식과학농법이 창조되였으며 감자농사의 과학화, 공업화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원종 및 채종생산으로부터 과학적인 비배관리, 농산과 축산의 결합, 종합적기계화실현과 감자가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선경을 자랑하는 읍지구의 희한한 모습도 좋지만 드넓은 벌을 주름잡아 달리는 《대홍단》호렬차의 기적소리는 또 얼마나 장쾌한가. 홍단수와 서두수의 푸른 물결우에 울려퍼지는 발전기의 고르로운 동음을 듣느라면 눈부신 대홍단군의 오늘을 위하여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력사가 뜨겁게 어려와 눈굽이 젖어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아래 천지개벽된 대홍단군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조국애,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보다 광휘로울 래일을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끝없이 이어지는 그리움의 길

천만군민의 앞길을 축복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더더욱 목이 메이고 심장이 끓어번지는 선군조선의 7월이다. 나날이 더욱 풍성하게 무르익는 이 땅의 번영의 열매들을 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행복감에 웃음짓기 전에 그 모든것을 위해 바치신 절세위인의 숭고한 헌신의 세계를 그리움속에 더듬어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태양의 집이며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그리움의 대하가 끊임없이 흐르는 주체의 최고성지입니다.》

사람들을 가득 실은 뻐스들이 쉬임없이 달린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고찾는 인민들을 위한 로선뻐스들이다.

4.25문화회관앞에서 출발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향하여 달리는 뻐스들에서 우리는 태양의 성지로 마음달리는 인민의 그리움을 뜨거이 느낄수 있었다.

바로 이 길에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전동차를 타고 지나신것은.

주체84(1995)년 7월 우리 장군님 타신 전동차를 따라 인민들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며 따라섰다.

엎어지며 신발이 벗겨지면서도 자애로운 어버이 우리 수령님을 뵈옵던 그때처럼 장군님을 따라 달리고달렸다.

격정의 바다, 눈물의 바다가 이 길을 뒤덮었다.

그날의 인민들의 모습을 잊지 못하시여 우리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온다.

우리 인민들은 정말 좋은 인민이라고, 저런 인민과 함께 숨쉬며 일하고있다고 생각하니 혁명을 더 잘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든다고 뜨거이 말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이 울려온다.

돌이켜보면 그 길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걷고걸으신 인민사랑의 길과 잇닿은 그리움의 길이였다.

동트는 새벽에도, 해지는 저녁에도 험한 진창길, 논두렁길을 헤치시며 조국땅 방방곡곡을 찾아 걸으신 우리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길은 몇천몇만리던가.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야전렬차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우리 장군님 이어가신 애국헌신의 초강도강행군길을 천만군민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한평생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랑의 장정을 수놓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이 세상 끝까지 따르며 받들려는 인민의 진정이 그래서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더욱 뜨거운것 아니던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의 대하가 태양의 성지로 굽이치고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이 길에 나선 사람들의 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온 나라가 가는 이 길을 끝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는 심장으로 느낀답니다.》

뻐스에 오른 우리에게 하는 운전사의 말이 가슴을 쳤다.

이 세상 모든 길에는 끝이 있지만 우리 인민이 이어가는 그리움의 길에는 영원히 끝이 없는것 아니랴.

본사기자 리금분

한생의 신조—인민들속으로

우리 수령님의 한생은 인민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혁명앞에 어려운 시련이 닥쳐올 때에도, 조국이 새로운 진군의 발걸음을 내짚을 때에도 인민을 찾아가시며 이 땅우에 창조와 비약의 전성기를 펼치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생애를 함축할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민들속에서, 이 한마디일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나날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전에 쟁쟁히 울려온다.

《나는 지금까지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인민들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나의 한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쳐온 한생이였으며 인민들과 함께 투쟁해온 한생이였습니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인민들속에서 한생을 시작하시고 총화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신조였다.

어느해 여름날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녁노을이 비낀 재등에서 위대한 장군님께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나는 위대한 스승이며 어머니인 인민의 성실한 아들이 되기 위하여 한평생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였다. 가야 할 혁명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광활한 미래는 위대한 노력을 요구하고있다.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스승인 인민들속에 들어가 부지런히 배우면서 쉬지 않고 일한다면 우리는 남먼저 광활한 미래를 앞당겨올수 있을것이다. …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며 내세우신 인민은 그 어떤 초인간적인 존재나 특수한 몇몇 사람들의 집단이 결코 아니였다.

기나긴 세월 정치적무권리속에 살아가던 사람들,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나아가던 인민들, 공장과 농촌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로동자, 농민들 그리고 과학과 기술로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일하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바로 그이의 인민이였고 하늘이였다.

지금도 만경대갈림길에 서면 해방과 함께 꿈결에도 그리시던 고향을 곁에 두시고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 떠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어려오고 무너진 벽체우에 앉으시여 페허를 하루빨리 가시자고 절절히 호소하시던 수령님의 말씀이 울려온다. 농촌에 가면 우리 수령님께서 농민들과 농사일을 의논하시며 허물없이 앉으시였던 수수한 멍석이, 어촌에 가면 어부들과 함께 만져보신 그물이 그리고 탄광에 가면 갱막장에까지 들어가시여 탄부들을 석탄증산에로 불러일으키시던 자취가 눈앞에 어려온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는 곳에서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락원이 솟아올랐고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서게 되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뜻깊은 회고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세차게 울린다.

특별히 기쁘고 행복한 때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들속에 들어가는 때이며 그 인민들속에서 온 나라의 본보기로 내세울수 있는 훌륭한 인간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시국을 론하고 생활을 론하고 미래를 론할 때이다. …

정녕 어버이수령님께서 수십성상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령도실천에서의 사소한 편향도 없이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기적같은 력사의 근본바탕에는 바로 그이께서 한평생 지니시였던 고귀한 좌우명이 놓여있었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백두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 출발선언과도 같은 이 구호가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길우에 더욱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믿지 않고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것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좌우명이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조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혁명을 진두지휘하시기에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는 세기를 이어 끝없이 메아리칠것이다.

박철준

경원땅이 전하는 이야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자아내는 7월 8일은 경원군사람들에게 있어서 류다른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잊지 못할 날이다.

20년전 7월 8일 경원땅은 커다란 환희로 명절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경원군을 현지지도하신 40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던것이다.

주체43(1954)년 7월 8일 두만강기슭의 여기 경원군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군안의 여러곳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이곳 사람들이 벌방사람들 못지 않게 잘살수 있는 휘황한 앞길을 펼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고마운 은정을 깊이 새겨주며 경원땅의 크나큰 자랑으로 되여 해마다 우리 수령님과 제일 가까운 날로 이어지던 영광의 그날이 가슴아픈 영결의 날로 될줄 어찌 알았으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현지지도의 길에 계셨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시기 경원군에 국가모범농장을 창설해주시고 몸소 현지에까지 나오시여 군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전화의 나날에는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며 경원군에 농업과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국영경원종합목장을 꾸리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전후 온 나라가 전쟁의 참화로 재더미가 되였던 주체43(1954)년 7월 8일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또다시 경원군을 현지지도하시며 이곳을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릴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

지금도 그날 우리 수령님께서 돌아보신 농포리의 포전에 서있느라면 몸소 밭가운데까지 들어서시여 탐스럽게 여물어가는 보리이삭들을 만져보시며 그리도 만족해하시던 수령님의 환하신 웃음이 저 하늘의 따사로운 해빛이 되여 쏟아져내리는것만 같아 격정을 금할수 없다.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흐뭇한 눈길로 두만강기슭을 따라 아득히 펼쳐진 보리밭을 바라보시며 기계화를 하면 농사가 잘된다는것을 도내농민들에게 실물로 보여주어야 하겠다고 기쁨에 겨워 말씀하시던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금시 귀가에 쟁쟁히 들려오는듯싶어 마음은 절로 숭엄해진다.

잊을수 없는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달구지나 겨우 다닐수 있는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읍에서 멀리 떨어진 하면축산분장(당시)도 찾으시였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방목을 하고있는 양떼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며 민주선전실의 수수한 긴 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목장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체취가 사진에서와 같이 어제날모습으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옛 민주선전실의 곳곳마다에 얼마나 진하게 슴배여있는것인가.

구름같은 양떼가 무리지어오는 모습을 한참동안이나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목장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고 나라의 축산업발전을 위한 휘황한 앞길을 펼쳐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서도 이곳 연혁소개실은 력사의 사실로 오늘도 소중히 전하고있다.

감격도 새로운 영광의 그날과 더불어 경원군은 어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혁명의 년대들마다에 자랑찬 위훈의 자욱을 새기였으며 그 과정에 오늘과 같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될수 있었다.

그러니 경원땅의 7월 8일을 어찌 그리움의 날이라고만 할수 있으랴.

그렇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늘도 60년전 7월 8일의 그 모습으로 경원군에 계시면서 농사일도 의논해주시고 축산업발전의 지름길도 가르쳐주시며 군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고계신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인민과 언제나 함께 계신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준혁

력사에 기록된 회의

주체83(1994)년 7월 어느날 금수산의사당(당시)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열리였다.

북받쳐오르는 슬픔을 묵새기시며 여러 문제들을 토의결속하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은 정말 좋은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목격하신 사실을 이야기하시였다.

어제밤 늦게 시내를 돌아보면서 만수대동상쪽에 가보았는데 교양마당에서 수많은 평양시민들이 비가 내리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령님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있었고 교양마당의 계단아래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들가운데는 한댓명의 청년대학생들이 화환을 지키면서 차례를 기다리고있었는데 그들은 온몸이 비에 흘딱 젖었지만 웃웃을 화환에 씌워 꽃이 비에 젖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있었다. …

헤아릴길 없는 상실의 아픔속에서도 인민을 생각하시며 인민을 위한 뜨거운 사랑의 말씀을 주고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강의한 혁명정신을 가진 인민, 자기 수령에 대한 례의도덕을 지킬줄 아는 도덕관이 확고히 선 인민을 보고 커다란 충동을 받았다고, 우리 인민은 자기 수령을 흠모하고 받드는 사상감정과 정신도덕적풍모가 세계 그 어느 나라 인민과도 대비할수 없이 고상한 인민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얼굴마다에서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그날 우리 일군들이 인민복을 받게 된것은 다 수령님의 덕이라고,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베푸시여 당과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서 일하도록 해주시였고 인민들을 교양하시여 수령을 알고 당을 아는 훌륭한 인민으로 키우시였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영원히 크나큰 긍지로 간직하여야 합니다.》

인민의 모습에서 수령님의 모습을 보시고 수령님의 위인상을 인민들에게서 찾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이렇게 내세워주시였다.

그날에 열린 정치국회의는 우리 일군들이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알고 자기 인민을 알게 한 잊을수 없는 회의로 력사에 기록되였다.

본사기자

조일우호친선협회 고문이 일본국회의원대표단을 만났다

조일우호친선협회 고문인 강석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11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이노끼 간지 참의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국회의원대표단을 만나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조일우호친선협회 회장인 박근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일본의 여러 정당출신 국회의원들인 중의원 의원 마쯔나미 겐따, 이시제끼 다까시, 사까구찌 나오또, 참의원 의원 시미즈 다까유끼, 야마다다로, 그밖에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일본국회의원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이노끼 간지 참의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국회의원대표단이 11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손님들은 감상록에 글을 남기였다.

이날 대표단성원들은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을 참관하였다.

웰남로동총련맹대표단 귀국

마이 득 찡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로동총련맹대표단이 11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의 영원한 힘

‖수 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김일성동지는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얼마전 전천군상업관리소에 들리였던 나는 그곳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앞에서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관리소자체의 힘으로 마련한 원료기지에서 해마다 수백t의 알곡을 내고있다는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욱 믿기 어려운것은 일흔이 넘은 정춘실소장이 아직까지도 밭에 나가 농사일을 하고있다는 사실이였다.

과연 무엇이 그에게 지칠줄 모르는 청춘의 패기와 정열을 가져다주는것인가.

이에 대하여 묻는 우리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움입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늘도 잘 있었는가고 하시며 우리의 일터를 찾아주실것만 같아 가슴이 설레이는것을 어쩔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거둔 성과에 자만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힘과 용기를 가다듬군 한답니다.》

눈물이 글썽하여 말끝을 흐리는 그를 바라보는 나의 가슴은 마냥 후덥게 달아올랐다.

그리움!

나는 마음속으로 몇번이고 이 말을 곱씹어보았다.

그러느라니 나의 머리속에는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지팽이까지 짚어가시며 어느 한 감자포전을 찾으시였던 일이 불현듯 떠올랐다.

인류력사 그 어느 갈피에 지팽이까지 짚어가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이어간 령도자가 기록된적 있었던가.

인민들이 보면 가슴아파할가봐 짚어야 하실 지팽이도 감추어가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지구를 14바퀴반 돈것과 맞먹는 거리인 57만 8 000여㎞나 되는 사랑의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우리 수령님.

우리 인민을 그토록 사랑하신분,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를 천만년세월이 흐른들 우리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참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겹쌓일 때마다 어버이수령님을 더욱 그리워했고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다듬은것 아니던가.

이 땅 그 누구의 마음속을 헤쳐보아도 우리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느낄수 있고 어느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그리움으로 불타는 충정의 맹세를 읽을수 있다.

바로 그 숭고한 사상감정이 천만의 심장속에 뜨겁게 새겨져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이라는 민족의 대경사를 안아올수 있은것이다.

그렇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야말로 선군조선의 영원한 힘이고 열정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뿜어져나오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이다.

그 그리움을 안고 오늘도 이 나라 천만군민은 상상할수 없는 힘, 불굴의 정신력으로 농장벌을 가꿔가고 쇠물을 끓인다. 그리움의 노래를 부르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돌진해나간다.

훈풍에 설레이는 드넓은 포전을 바라보는 나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심장의 웨침이 세차게 울려나왔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의 그리움이 얼마나 진실하고 뜨거운것인가를 알려면 이 땅우에 펼쳐지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을 보라! 그 영원한 힘이 안아오는 강성부흥의 찬란한 래일을 보라!

본사기자 정순학

미국의 쇠퇴몰락은 력사의 필연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백서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며 세계우에 군림하였던 미국이 오늘날 전횡과 독단으로 인한 고배를 삼키며 쇠퇴몰락하고있다.

다극화된 세계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정책은 더는 통할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거대한 제국》 미국이 정치, 군사, 경제, 사회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헤여나올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인류는 미국주도의 세계지배체계로서의

허울만 남은 《초대국》

랭전종식후 미국은 일극세계를 실현할 야망에 들떠 세계도처에서 거리낌없이 전쟁의 불을 지르고 독단과 일방주의정책으로 국제무대를 어지럽혀왔다.

《부쉬주의》가 극도에 달하였을 당시 적지 않은 미국의 보수파 학자들과 정객들은 《미국식평화》니 《아메리카제국》이니 하는따위의 궤변들을 부쩍 여론화하였다.

미국 보스톤대학의 국제관계학교수 앤드루 바세비치는 신문 《워싱톤 포스트》 2003년 4월 20일부에 기고한 《우리는 힘을 가졌다. 자, 어떻게 그 힘을 쓸것인가?》라는 제목의 글 서문에서 《세계는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고 력설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앞에서 파멸선고를 받은 산송장신세가 되고말았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은 지역에 대한 끝없는 탐욕과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과 간섭의 전략이였다. 다시말하여 무력으로 지역대국들의 영향력과 세력권확대를 견제하고 미국식지배주의질서를 세우자는것이였다.

미행정부는 《미래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관계되며 미래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미국에 달려있다. 그 어느 국가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지 못할것이다.》(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 2010년 1월)라고 공공연히 떠벌임으로써 지역에 대한 저들의 패권주의적기도를 명백히 드러냈다.

그것은 즉시 지역나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으며 오늘날 전면파산에 처하였다.

지난 5월 20일 로씨야와 중국은 정치, 군사 등 각 방면에서 서로 힘을 합쳐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에 대항하는것을 내용으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두 나라가 손을 맞잡고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에 맞불을 놓고나섰다.》고 평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대해 외신들은 오바마의 전략적구상과 실제적인 집행과정을 놓고 미국회는 물론 지어 민주당내에서도 의견상이가 존재하고있다, 총체적으로 놓고볼 때 오바마의 전략은 《자원불균형》, 《정력불균형》, 《동력불균형》이라는 3대도전에 직면해있다고 전하였다.

이것은 오바마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이 지역나라들로부터 여지없이 된서리를 맞고있을뿐아니라 미국내에서까지 실현불가능한 정책으로 간주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계도처에서 미국의 패권적지위가 물먹은 담력처럼 허물어지고있다.

로씨야잡지 《엑스뻬르뜨》는 《미국의 군사적우세가 이 나라가 말려드는 지역충돌에 의해 제지되고 종당에는 사라지고말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지정학적문제들에서 련합과 분렬, 리간과 포섭 등 갖은 수단을 제멋대로 구사하던 행동공간은 제한을 받고있다. 미국은 명백히 힘이 딸린다.》고 지적하였다.

지금 이라크를 휩쓸고있는 내전에 대해 미국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전전긍긍하고있다. 내전의 수렁창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라크에 다시는 대병력을 들이밀지 않겠다고 뻗치면서 지난 시기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이란에 《협력》을 구걸하는 형편이다. 내전을 일으킨 그루빠는 다름아닌 이전에 미국의 테로지원을 받은 이슬람교극단주의단체이다. 미국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제가 빠진 격이 되였다.

로씨야신문 《쁘라우다》 2014년 6월 16일부는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테로분자들을 후원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정책은 잘못된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전략은 반대로 미국의 지《팍스 아메리카나》(미국주도의 평화)시대가 끝장나고있음을 시시각각 목격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국제무대에서 날로 패권적지위를 잃고있는 미국이 그 가련한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라는것을 확증하는 백서를 발표한다.

배권을 면전에서 눈처럼 녹게 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아프가니스탄문제를 놓고서도 미국은 호미난방의 처지에 빠져있다.

전쟁초기 탈리반에 대해 《테로분자들과는 그 어떤 회담도 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던 미국이 지금에 와서 탈리반을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하고 그들과 평화회담에 나선 사실(로씨야신문 《꼼메르싼뜨》 2013년 1월 14일)은 어쩔수없이 비굴하게 나오지 않으면 안되게 된 미국의 무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지난 5월 27일 오바마는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철수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3만 2,000명의 철수가 시작되여 2016년말까지는 거의다 철수하게 된다.

이에 대해 미국회 상원 의원 그라함은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가 전쟁을 끝내는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한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미국 VOA방송 2014년 5월)

결국 영예로운 철수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패주로 되고말았다.

또한 우크라이나문제를 둘러싸고 로씨야와 정면대결에 나선 미국은 렬세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자기의 민족적리익을 놓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강경자세를 보이는 로씨야에 대해 제재몽둥이를 들고나섰지만 김빠진 소리에 불과하였다. 중국과 인디아가 제재조치에 반기를 들었다.

이번 우크라이나문제를 두고 여론들은 로씨야, 중국, 인디아와 지역의 동반자들이 국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서방이 《정의독점》권을 상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신하고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국가들과 국가그루빠들의 호상의존이 점점 더 심해지는 현시대에 새로운 랭전이 일어난다면 승자는 없을것이며 오직 패자만 있을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로씨야의 소리》방송 2014년 3월)

이미전에 미국 예일대학 력사학교수 폴 케네디는 신문 《워싱톤 포스트》에 기고한 《제국의 위험》이라는 글에서 미국에 이런 비평을 던졌다.

《력사가 반드시 똑같이 반복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력사는 력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쓴맛을 보여주었다.》

력사에 도전하여 안하무인격으로 놀면 반드시 종말의 위기를 겪을수밖에 없다고 미국에 경종을 울린것으로 된다.

료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반미기운으로 하여 세계도처에서 미국이 두들겨맞고 고립배격당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로 되고있다.

2013년 3월 13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세계각지에서 진행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의하면 당시 미국에 대한 평균반대률은 2009년에 비해 4% 올랐다. 특히 파키스탄인들과 팔레스티나인들속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한 비률은 각각 79%, 77%에 달하였다.

또한 지난해말 《갤럽》이 65개 나라의 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응답자들이 미국을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았다고 한다.

미국은 동맹국들로부터도 눈밖에 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발표한 이후 미국은 유럽에 저들의 전략을 지지하며 방위분야에서의 부담을 나누어 맡을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유럽나라들의 반응은 쌀쌀하였다. 《보류적인 태도》, 《강건너 불보듯》, 《속에 불만》(중국 신화통신 2013년 2월), 이것이 유럽나라들이 보여준 태도였다.

일본은 미국이 강요하는 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체결이 상전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과 직결되여있다는것을 잘 알면서도 시장개방문제에서는 미국에 단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있다. 일본의 《마이니찌신붕》은 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과 관련한 일미사이의 마찰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질서구축에 그늘을 드리우게 될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모든 사실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전쟁과 간섭을 일삼은 결과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있으며 《초대국》이라는 지위는 허울만 남게 되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프랑스에서는 《아메리카제국》의 종말을 예언한 책 《아메리카이후》가 발행되여 대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2013년 12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연구쎈터는 미국이 국제문제들에 지나치게 간섭하고있는데 대해 국민의 80%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있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미국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정부의 반동적이며 침략적인 정책에 등을 돌려대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민심을 잃은 제국의 운명은 멸망으로 끝나기마련이다.

히틀러의 나치스제국과 마찬가지로 《아메리카제국》의 운명도 비극적으로 끝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국가채무, 예산적자위기가 걷잡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16조 7,000억US$였던 채무한도를 높이기로 합의한지 하루만인 지난해 10월 17일에 미국의 국가채무는 3,280억US$나 부쩍 늘어나 력사상 처음으로 17조US$를 넘어섰다. (《로씨야의 소리》방송 2013년 10월)

프랑스의 한 경제학자는 《미국은 멸망하고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미국의 국가채무는 한해 국내총생산액과 거의 맞먹는 액수이라고 하면서 미국경제가 거의 파산상태에 직면하고있는 조건에서 앞으로 2018년경에 가서는 채무액수가 적게 잡아서 지금보다 근 1.5배정도 늘어날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말에 끝난 2013회계년도에 미국의 련방예산적자는 6,800억US$에 달하였다. (미재무성 2013년 10월 30일)

심각한 재정난으로 하여 2013년부터 미국정부는 재정절벽, 련방정부자동지출삭감, 정부폐쇄, 채무불리행 등 전대미문의 각종 사태와 악순환을 치르며 곤경을 겪고있다.

이러한 속에 딸라의 지위는 급격히 약화되고있다.

1971년 미국정부는 딸라와 금과의 교환정지를 선포함으로써 저들이 지고있는 막대한 빚을 금으로 상환할수 없는 처지에 스스로 빠졌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제1차 딸라위기는 1980년대 중엽 제2차 딸라위기로 이어져 그때부터 미국은 채권국으로부터 채무국으로 전락되였다.

21세기에 들어와 미국딸라는 세번째로 되는 위기를 맞음으로써 그 존재가치는 더더욱 희미해졌다.

결국 미국딸라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 국제금융체계의 붕괴가 본격화되고있다.

미국 UPI통신은 《이제 세계는 금융체계에서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더이상 국제금융체계를 통제할수 없게 될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세계는 제명을 다 산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체계, 미국딸라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금융체계를 배격하고 다극화의 길로 확고히 나아가고있다.

로씨야가 루블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로씨야정부는 최근 독립국가련합체나라들에서 루블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있다고 하면서 루블을 준비화폐로 사용하는것이 가능하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대표적실례로 까자흐스딴은 집단안전조약기구내에서 군수품을 구입할 때 로씨야 루블로 청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5월 21일 로씨야대외무역은행은 중국은행들과 웬에 의한 국제결제를 정식 시작하였다. 이미 량측 은행들은 2005년부터 쌍무거래와 관광봉사를 루블과 웬에 의한 결제방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던것이 이번에 대외무역에로 결제범위를 더욱 확대시킨것이다. (《로씨야의 소리》방송 2014년 5월)

지난해 중국인민은행과 유럽중앙은행사이에 화폐교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이로써 무역에서 딸라에 의존하던 종전의 금융체계에서 벗어나 직접 웬과 유로를 결제화폐로 리용할수 있게 되였다.

미국의 끈질긴 금융제재에 대처하여 미국딸라에 의한 원유거래의 중지를 선포한 이란정부는 2012년부터 수출하는 원유대금의 일부를 해당 나라들의 화폐로 지불받고있다.

브라질, 로씨야, 인디아, 중국, 남아프리카로 구성된 다무적협조기구인 브릭스가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세계를 일떠세우는것을 구호로 내걸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이딸리아신문 《라 레뿌블리까》는 신흥대국들로 이루어진 브릭스는 미국주도의 서방식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새로운 구락부》가 형성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평하였다. 브릭스나라들은 자체의 개발은행을 창설하여 딸라중심의 금융체계에 도전하려 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알바성원국들은 몇년전부터 공동화폐 쑤끄레를 성원국들사이의 무역화폐로 정식 리용하고있으며 전망적으로 대륙의 모든 나라들에 도입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아프리카대륙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5개 나라가 서부아프리카통화지역창설을 위한 공동화폐도입을 결정하였으며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성원국들은 2018년까지 단일화폐를 내올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밖에 만지역의 원유생산국들이 중동지역의 단일화폐도입을 론의한것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단일화폐도입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있다.

금융분야에서의 이러한 다극화추이는 압력과 전횡이 란무하던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질서에 통구멍을 내고 정의와 평등, 민주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데로 이어질것이다.

미국이 딸라를 휘둘러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으며 딸라제국의 붕괴는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딸라제국의 붕괴는 시간문제

오래전부터 미국은 핵무기와 함께 딸라를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2대기둥으로 삼아왔다.

알려진바와 같이 현 국제금융체계는 미국이 1944년에 서방나라들을 설복하여 《브레톤우즈체계》, 즉 미국딸라를 자본주의세계의 유일한 통화로 만드는 제도를 내옴으로써 형성된것이다. 그것을 리용하여 미국은 많은 경제재정적리득을 챙기였다.

미국이 걸핏하면 다른 나라들에 가하는 금융제재가 무시할수 없는 효력을 발휘하고있는것도 결국은 현 국제금융체계가 미국딸라를 기축통화로 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한 딸라에 의거하고있는 미국경제가 지금에 와서 산소호흡기에 매달려있는 신세에 처하였다.

지난 2008년부터 미국을 휩쓸기 시작한 금융위기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을 재촉하는 계기로 되였다.

《팍스 아메리카나》 이전에 존재하였던 영국주도의 세계지배체계는 제2차 영국—보아전쟁이 끝난 1905년이후 당시 영국이 이 전쟁에 막대한 돈을 탕진한것으로 하여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결과 몰락한것으로 력사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그 자리를 넘겨받은 《팍스 아메리카나》가 역시 같은 원인으로 림종을 눈앞에 둔것이다.

금융위기가 심화되던 2008년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가 미국 이전에 세계유일초대국이였던 영국의 쇠퇴과정과 현재 흔들리고있는 미국의 모습을 비교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미국 죤즈 홉킨스종합대학 교수 후꾸야마는 잡지 《뉴스위크》에 《〈주식회사〉—미국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여 미국이라는 상표가 금융위기로 종말에 처하게 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금융위기가 남긴 후과는 심각하며 미국경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말았던것이다.

출로가 없는 막다른 《골목거리 1번지》, 이것이 미국경제에 붙여진 《주소》이다.

이러한 경제실태를 두고 국제신용평가단체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즈는 설립된 이후 70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추었다.

외신들은 그것이 미국경제의 《심장》에 타격으로 된다, 미국경제가 《제2차 쇠퇴》에 빠질것이다, 경제적으로 막다른 궁지에 몰린 미국에 있어서 자기의 패권적사고방식과 행동을 반성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으며 미국경제는 키가 없는 돛배가 되여 정처없이 헤매는 신세가 되였다.

말세기적풍조가 든 미국식사회

미국은 물질생활과 정신문화생활분야에서 나타나고있는 말세기적풍조로 하여 오래전부터 망조가 든 사회이다.

물질생활이 극도로 기형화되고있다.

지금 미국의 억만장자들속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재부를 탕진할데가 없던 나머지 애완용개들에게 1만 5,000US$어치의 금강석목걸이를 걸어주고 수십만US$어치의 생일대연회를 차려주는것과 같은 믿기 어려운 놀음들이 극히 자연스럽게 벌어지고있다.

그것도 모자라 끔찍한 뱀들을 애완용으로 기르는데서 쾌락을 찾는 변태적인 풍까지 만연되고있다.

이런 비인간적수요를 일확천금의 기회로 본 돈벌레들이 세계각지에서 뱀을 경쟁적으로 끌어들이고있는탓에 지금 미국에서는 《뱀산업》이라는 소름끼치는 말이 류행되고 독사, 구렝이를 비롯한 250만마리이상의 각종 뱀들이 이 나라 억만장자들의 궁궐같은 집들에서 호사를 누리고있다.

한쪽에서는 4,650만명이나 되는 빈궁자들이 살길을 찾아헤매고(미국인구조사국 통계자료 2013년 9월 17일) 한해에 평균 10%이상씩 뛰여오르는 살림집값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 집마련의 꿈을 버리고 한지에서 지내고있을 때 한줌도 안되는 부자들은 수만US$짜리 뱀들과 하나로 뒤엉킨채 질탕하게 놀아대고있다.

이러한 미국의 현실을 놓고 2011년 9월 18일 영국신문 《옵써버》는 《두개의 세계가 공존하는 뉴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뉴욕시의 14구역과 16구역은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14구역은 미국경제의 명맥을 쥐고있는 금융계거물들이 살며 쾌락을 즐기는 곳이다. 부자들은 호화아빠트에서 살면서 값비싼 나이트클럽들에 매일밤 돈을 퍼붓고있다. 그러나 빈곤층이 살고있는 16구역은 강력범죄가 판을 치는 무서운 곳이다. 이곳의 방랑자들은 강도행위로 생계를 유지하고있으며 그에 대한 형벌로 감옥에서 죄수밥을 정상적으로 먹는것을 호화생활로 간주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빈부가 낳은 두 세계의 대조적인 생활모습이다.》

정신문화생활도 날로 빈궁화되고있다.

미국의 자본가들은 근로대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저들에게 순종하는 돈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있다.

현재 미국에서 방영되고있는 TV오락편집물가운데서 80%가 류혈적인 살인내용을 담고있으며 매일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방영되는 편집물가운데서 폭력화면은 시간당 평균 8~12번이나 펼쳐지고있다.

미국은 전무후무한 《강도대학》, 《따기학교》까지 차려놓고 범죄자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내고있다.

2009년에 100만여명을 망라한 2만개 수준이였던 미국의 강도단수가 2012년에는 140만명을 망라한 약 3만 3,000개로 부쩍 늘어났다. (미련방수사국 2012년 3월 15일)

정신문화적으로 부패타락한 미국인들속에서는 총기류, 마약범죄와 같은 각종 흉악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있다.

총기류범죄가 고칠수 없는 하나의 《악성류행병》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개별적주민들이 휴대하고있는 총기류수는 무려 약 3억정에 달하고있으며 (미국 CNN방송 2013년 4월) 해마다 총기류에 의한 범죄로 3만여명이 죽고 20여만명이 부상당하고있다.

지난 4월 2일 텍사스주에 있는 포트 후드군사기지에서는 한 미군병사의 무차별적인 총질에 의해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기지에서는 2009년 11월에도 총기류범죄로 단번에 45명이 죽거나 부상당하는 사건이 터져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낸바 있다.

총기류범죄사건이 지난해 뉴욕시에서만도 1,093건이나 감행되였다.

총기류란사로 체포된자들은 자기의 범죄동기에 대해 《다툴과 복수를 위해서》, 《총구앞에서 피를 터치며 쓰러지는 인간들을 보고싶은 충동때문에》, 《영화에서 본 살인장면을 재현해보구싶어서…》 등으로 대답하고있다.

총기류범죄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한 출판물은 《미국인들이 서로 죽일내기를 하며 중세기적암흑속에서 불안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개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은 미국을 살인률에서 세계 1위의 나라로 발표하였다.

인간을 정신, 육체적으로 타락시키는 마약범죄 역시 미국의 골치거리로 되고있다.

지난해 미국의 한 조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마약람용자수는 전국적으로 2,260만명에 달하고있다.

미국에서 헤로인소비량은 최근년간에 80%나 늘어났다. (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 2014년 2월)

각종 범죄의 증대는 수감자증대를 낳기마련이다.

현재 미국은 수감자수에 있어서도 220만명으로 세계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 2014년 3월)

불어나는 죄수들에 비해 감옥들이 현저히 모자라다나니 개인들이 저마끔 감금시설을 차려놓고 돈벌이하는 현실까지 펼쳐지고있다. (중국 《세계신문보》 2014년 4월 7~13일부)

이에 대해 로씨야의 한 TV방송은 《미국에서 개인감옥의 리윤이 이렇게 많은것으로 하여 지금 부유층이 이에 대한 투자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힐것이다.》라고 조소하였다.

미국의 교육실태는 더욱 한심하다.

2011년 8월 펜실바니아주정부는 교육사업에 쓰기로 되여있던 10억US$의 자금을 떼내여 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건설에 돌림으로써 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교육사업에 대한 태도가 이러하다나니 교육의 질은 나날이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전국의 중학생들중 대다수가 지도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등을 찾지 못하고있으며 고등학교 학생들중 40%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일자리를 얻는데 필요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채 졸업하고있다.

미교육장관은 자기 나라에서 1,100만명의 성인들이 영어를 읽을줄도 쓸줄도 모르고있으며 3,000만명은 그 어떤 문건이나 은행행표에 겨우 수표나 할수 있는 정도라고 발표하였다.

썩어빠진 사회현실은 무서운 분노의 폭발을 낳기마련이다.

2011년에 독점자본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뉴욕시의 월가에서 일어난 반월가시위가 미국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최대규모의 반자본주의투쟁으로 전개된것은 극도로 첨예화된 사회계급적모순이 낳은 필연적산물이다.

기형적인 물질생활과 빈궁화되여가는 정신문화생활로 하여 미국의 종말은 더욱 다그쳐지고있다.

제반 사실은 《아메리카제국》의 붕괴가 현실로 되여가고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미국이라는 난파선이 바다속에 완전히 수장될 날은 멀지 않았다.

주체103(2014)년 7월 11일
평 양

그는 오늘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에 서있다

개천시 군우공예전문협동농장 제1작업반 기술원이였던 도명숙동무

현시기 당에서는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제1제대 제1선참호로 내세우고있다. 하다면 그것은 어떤 정신세계를 지닌 수호자들에 의하여 지켜지고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지난 4월 18일이였다.

이날도 제1작업반의 모판관리공들은 포전에서 모판관리를 하고있었다. 아침해가 어느덧 중천에 떠오르자 그들은 작업반 기술원인 도명숙동무네 집쪽을 근심어린 눈길로 자주 바라보며 이런 말을 건늬고있었다.

《기술원동무의 병이 어떨가요?》

《글쎄, 아직 포전에 나오지 못한걸 보니 병이 심한것 같아.》

전날에 아픔을 참아가며 벼모상태를 알아보다가 포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도명숙동무를 병원으로 떠나보냈지만 그들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얼마후 그들은 딸의 부축을 받으며 포전으로 나오는 도명숙동무를 보게 되였다.

모판관리공들이 한달음에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어서 집에 들어가라고 거듭 권고했지만 도명숙동무는 벼모들을 한번 보아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면서 모판쪽으로 향하는것이였다.

도명숙동무는 새파란 잎새를 펼치며 하루가 다르게 실하게 자라는 벼모들을 사랑어린 눈길로 보고 또 보았다.

그는 심해지는 아픔을 애써 감추며 모판관리공들에게 당면한 벼모판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알려주었다. 그러던 그는 또다시 의식을 잃고 자리에 쓰러졌다.

《기술원동무, 정신 차리라요!》

의식이 혼미해지는 속에서도 도명숙동무는 농장원들의 손을 꼭 잡고 《모, 모를 부탁…》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곁에 있던 농장원들이 오열을 터치며 안타까이 찾았지만 그는 다시 눈을 뜨지 못하였다.

이것이 농장원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도명숙동무의 마지막모습이였다.

나라의 쌀독에 한알의 낟알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 밤잠도 잊고 그 누구보다도 발이 닳도록 뛰여다닌 도명숙동무는 이렇게 생을 마치였다.

농촌에서 나서자란 도명숙동무로 말하면 학창시절에 꿈도 많았다.

동생의 학습을 도와주다가도 저도모르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될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잠자리에 누워서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마을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는 꿈도 꾸군하였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어머니당의 고마움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새겨안은 도명숙동무였기에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들의 뒤를 이어 사회주의농촌진지를 지켜섰다.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우는 길에 나의 모든것을 다 바치리라.

농사를 잘 짓는것이 곧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한 도명숙동무는 자기가 일하는 포전을 사회주의를 지키는 전초선으로 여기고 이악하게 일해나갔다.

얼마후에는 손탁이 세고 일욕심많은 처녀분조장으로 소문이 자자하였다.

작업반기술원이 된 다음부터 농장원들은 그가 언제 잠에서 깨여나고 잠자리에 드는지 알수 없었다.

도명숙동무는 작업반농사가 전적으로 기술원인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농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였으며 작업반원들이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실속있게 해나가도록 하였다.

모판관리가 한창이던 어느날 도명숙동무는 한 모판관리공이 모판박막을 벗기는 일을 소홀히 하는것을 보게 되였다. 그냥 스쳐지날 문제가 아니였다.

《풍년농사는 모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농사의 주인인 우리들의 깨끗한 량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도명숙동무의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모판관리공들의 일본새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언제인가 농장에서 새로운 벼모재배방법을 받아들일 때였다.

작업반의 일부 사람들은 그 방법이 좋다고는 하면서도 선뜻 응하지 못하였다.

그러는 농장원들에게 도명숙동무는 새로운 벼모재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것을 받아들인 단위들의 경험과 우월성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주었다. 작업반원들은 그의 높은 실력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앞선 영농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는데 알곡증산의 예비가 있다는것을 언제나 잊지 맙시다.》

도명숙동무의 말을 들으며 작업반원들은 왜 그가 늘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농사일에 몸을 아끼지 않는지 잘 알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작업반에서는 많은 영농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게 되였다.

한번은 간밤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린적이 있었다.

뒤늦게야 포전으로 달려나온 작업반원들은 곡식들이 무사한것을 보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그러던 그들은 온몸에 흙탕칠을 하고 삽을 쥔채 논뚝에 앉아있는 도명숙동무를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가 딸과 함께 집에 있던 마대까지 내다가 흙을 담으면서 불어난 산골물에 곡식이 상할세라 밤새워 논뚝을 지켰다는것을 알고는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이런 일은 그 후에도 계속되였다.

오늘 작업반에서 영양모를 100% 도입하고있는 사실과 최근년간 줄대같이 실한 모를 키워 시적으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는것도, 자체의 힘으로 작업반농사를 짓고있는것도 다 도명숙동무의 이악한 노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작업반의 포전을 손금보듯 환히 꿰들고있던 그는 작업반원들에게 자주 농사지식과 경험을 차근차근 알려주며 미리미리 필요한 영농대책들을 세워주군 하였다. 작업반원들은 무슨 일에서나 막힘이 없는 그를 두고 척척박사라고 불렀다.

그는 작업의 쉴참이면 작업반원들에게 더욱 아름답게 변모될 고향마을의 래일을 그려주면서 알곡생산에로 고무해주군 하였다.

자나깨나 오직 농사일밖에 몰랐던 그에게 있어서 작업반의 모든것은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의 한부분이였고 농장포전은 사회주의를 지키는 성새였다. 그래서 농장원들이 그를 더더욱 잊지 못하는것이다.

도명숙동무는 비록 우리곁을 떠났지만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를 지켜선 농업근로자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안고
—청남탄부피복공장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친혈육의 정으로

2.8직동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피흘린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탄광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뜻깊은 명절날, 기념일들은 물론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의 생일날에는 성의껏 마련한 기념품들과 영양식료품, 보약재들을 안고 찾아가 그들의 건강상태와 생활형편을 알아보며 따뜻이 고무해주고있다.

로농통신원 김청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개선의 출로를 열어나가자

평화통일의 밝은 전망을 펼쳐주는 획기적제안

평화통일은 겨레의 세기적숙망이고 막을수 없는 지향이다. 민족분렬의 비극이 세기를 이어 지속될수록 이 땅에서 전쟁의 위협을 하루빨리 가시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해내외 온 겨레의 열망은 더더욱 높아가고있다. 그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남조선당국에 조국통일 3대원칙을 틀어쥐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데 대한 내용의 특별제안을 보냈으며 이어 공화국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특별제안과 정부성명에서는 평화통일의 원칙에서 모든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평화적분위기를 조성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자면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상태를 끝장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지 않고는 북남관계의 개선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도 기대할수 없다.》

우리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과 공화국정부성명의 발표는 조선반도에서 날로 커가는 새 전쟁발발의 위험을 가시고 북남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려는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다.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조국통일위업의 전도와 관련된 사활적문제이다.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자면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적대행위가 종식되고 평화적분위기가 마련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극도로 첨예하다. 미국이 남조선군부당국을 사촉하여 지난 2월부터 여러달에 걸쳐 악명높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 《맥스 썬더》전쟁연습 등 각종 불장난소동을 사상 최대규모로 감행함으로써 조선반도에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였다. 최근에도 남조선군부세력은 조선서해의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위험한 포사격도발을 함으로써 쌍방사이에 무력충돌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성을 조성하였다. 그 무슨 《북잠수함에 대처》한다는 간판밑에 조선동해에서 방대한 무력이 동원된 가운데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되였으며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위한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들도 계속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오는 8월에는 미국과 함께 《맞춤형억제전략》을 적용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고 획책하고있다. 그 어느때보다도 우심해지는 남조선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행위는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것과 함께 북침전쟁도발을 목적으로 하는것으로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는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군사적적대행위는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백해무익하다.

군사적적대행위는 북남관계의 파탄에로 이어지기마련이다.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면 무엇보다도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적대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북과 남사이에는 군사적으로 대결하여야 할 그 어떤 리유도 없다. 북과 남사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는 결코 대립과 충돌의 근원으로 될수 없다.

북과 남은 한피줄을 이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내부에서 제기되는 그 어떠한 문제들도 얼마든지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다. 지난 시기 북과 남은 힘을 합쳐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온 훌륭한 전례들을 가지고있다. 6.15시대의 현실은 대화와 평화적방법이 문제해결의 가장 좋은 열쇠이며 군사적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지향해나갈때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은 물론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박두해오는 핵전쟁위험이 하루빨리 제거되고 북남사이에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이 마련되기를 절절히 바라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조선서해열점수역을 포함한 모든 대치계선에서 군사적적대행위를 7월 4일 0시부터 전면중지하고 미국과 함께 벌리게 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계획을 즉시 취소하는 등 무모한 적대행위와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갈것을 남조선당국에 제의한것은 겨레의 이러한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한것이다.

이것은 날로 엄혹해지는 정세속에서 겨레의 운명을 지키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마련하려는 민족적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한 애국애족의지의 발현이다. 민족의 운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결코 외면할수 없다.

우리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과 정부성명의 발표는 세기를 이어온 북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와 대결상태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하려는 애국적용단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이 지속되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을수 없는 고통이며 수치이다.

심화되는 군사적대결속에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피줄을 이어온 우리 민족내부의 반목과 질시의 골은 깊어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전쟁의 시한탄은 겨레의 운명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민족의 통일적발전에 리용되여야 할 귀중한 재부와 자원이 동족대결에 헛되이 소모되고있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발전과 번영을 지향해나가고있는 때에 우리 민족은 반목과 대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이 얼마나 가슴아픈 비극인가.

북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는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한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세의 간섭과 음모에 따른것이다.

미국은 침략적인 대조선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남조선당국을 동족과의 군사적대결에로 끊임없이 내몰고있으며 고의적인 긴장격화책동으로 북남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고있다.

지난 수십년간 남조선에서 감행된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들은 남조선당국을 부추겨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고 전조선을 지배하려는 미국의 범죄적흉계의 산물이다.

남조선당국을 북침전쟁도발의 돌격대로 적극 써먹으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조국통일을 가로막아온 미국의 악랄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가 끊임없이 격화되고 그것이 조선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한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비극적현실이다.

이제 더는 외세의 간계에 놀아나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해치는 어리석은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걷어치우고 북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 군사적위험요소들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제거하자는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우리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과 공화국정부성명에 천명된대로만 한다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애국애족적립장과 평화애호의지가 반영된 제안을 심사숙고하여 대해야 하며 시대와 민족의 요구에 맞게 책임적인 행동을 취하여야 할것이다.

은 정 철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에 떨쳐나서자

우리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간곡한 유훈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이 어리여있는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하는것이야말로 전체 조선민족앞에 맡겨진 성스러운 의무이고 영예로운 과업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애국애족의 사상과 로선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과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외세가 강요한 나라의 분렬은 우리 겨레에게 불행과 고통, 재난만을 가져다주었으며 오늘까지도 지속되고있다.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외세는 북과 남이 단합하여 통일에로 나아가는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통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 기본원인은 침략적인 외세의 반통일책동에 있다.

조국통일은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한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을 대신해줄수 없다.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것도, 그 담당자도, 그 덕을 볼 사람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통일의 주체로서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에서 응당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주적지향을 안고 하나의 목적과 리상으로 굳게 단결된 민족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립장을 견지해야 외세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이룩하는것은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근본원칙이다.

우리 겨레는 자랑찬 6.15통일시대를 개척해오면서 온 민족이 단합하여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는 과감한 투쟁을 벌릴 때 평화도 있고 통일과 민족번영도 있다는것을 페부로 절감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민족의 자주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이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원칙과 립장에는 변화가 있을수 없다.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도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조국통일에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과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북과 남은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자주적운명개척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지금 반통일세력들은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대결을 로골적으로 추구하면서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우리 공화국정부성명과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의 정당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있다.

이번에 발표된 성명과 특별제안은 우리 겨레모두에게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자각과 통일애국의지를 북돋아주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새로운 주체100년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성스러운 애국투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기어이 삼천리강토우에 번영하는 하나의 조선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여,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간곡한 유훈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해나가자!

라 영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대한 각계의 반향

특별제안을 받아들일것을 요구

지금 남조선 각계는 우리 공화국의 특별제안을 적극 지지찬동하면서 당국이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고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20여개의 평화, 통일운동단체들은 지난 3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이 공화국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을 받아들일것과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실천행동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공화국의 특별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국의 태도에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정부》가 북남관계개선의 장애물이 되여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42년전 7.4공동성명을 통해 북과 남이 선언한 통일의 대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공화국의 특별제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전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중단을 제안하고 군사적적대행위중지를 실천하자는 북의 제안은 사실상 온 민족이 원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목살한 당국을 규탄하였다. 그는 과거 《유신》독재자가 7.4공동성명에서 지적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말로만 합의하고 실천하지 않은데 대하여 까밝히면서 현 집권자의 태도도 그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발표되여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실천이 이루어졌지만 오늘 그 모든 북남사이의 합의는 지켜지지 않고있다고 성토하였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금강산관광이 6년째 중단된 상태이고 북남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마저도 2010년 리명박《정권》에 의해 취해진 《5.24조치》이후 전면중단된데 대하여 개탄하였다. 한 종교인은 북남대화를 열고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며 개성공업지구의 지속적인 정상화 등으로 북남관계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존중하고 북남사이의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마련하며 북남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활동을 재개할것을 제안하면서 각계가 통일운동을 적극 벌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김 현 철

절세위인들의 유훈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돐이 되는 뜻깊은 날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은 지금 우리모두에게 천만근의 무게로 새겨진다. 가슴이 높뛴다. 무어라 형언할수 없는 시대의 자각이 느껴진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문제로 얼마나 마음쓰시였는가. 얼마나 겨레의 운명을 두고 걱정하시였으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친필도 조국통일문건에 남기시였겠는가.

그때로부터 20년이 흘렀지만 민족의 어버이의 조국통일념원은 아직 유훈으로 남아있다.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 이보다 더한 죄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가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라 할것없이 심장에 손을 얹고 돌이켜보아야 할것이다.

북과 남은 화해와 단합의 손을 잡아야 한다. 손을 굳게 맞잡고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시대의 요구이기 전에 민족성원모두의 의무이며 책임이다.

공화국정부성명에는 현시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들이 다 반영되여있다.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려는 겨레의 드팀없는 의지, 민족의 불같은 지향을 하나로 엮어낸것이 바로 공화국정부성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번에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게 되는것도 6.15의 열풍을 다시 일으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유훈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진정어린 제안에 응하지 못할 그 어떤 리유나 조건도 없다.

우리 성의 일군들은 공화국정부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밀천을 마련해나간다는 자각을 안고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자신들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겠다.

기계공업성 부국장 김 순 애

민족이 살길은 자주와 단합의 길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해결해나갈것을 호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은 전체 조선민족이 오늘 어떠한 자세와 립장에서 조국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하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깨우쳐주고있다.

정부성명에도 지적되여있는 바와 같이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나가 《지지》를 청탁하고 동족을 모해하는 《제재》와 《공조》를 구걸하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롱락물로 내맡기는 사대매국행위이다.

우리 민족은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존엄과 자주권을 짓밟힌 지난날의 치욕과 수치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단일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갈라져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것만도 가슴아픈 일인데 저들의 리속만을 차리려는 외세에 또다시 빌붙으며 돌아간다면 그것은 벌써 조선사람이기를 포기한것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조선민족의 피를 지닌 사람이라면 오늘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외면할수 없으며 북남관계문제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립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외세와의 결탁으로는 민족문제를 절대로 해결할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 서로 손을 잡고 북남관계문제를 풀어나갈 때 온 강토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차넘치게 된다는것은 6.15통일시대가 보여주는 진리이기도 하다.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자기의 리익만을 생각하면서 제동을 건다면 그것은 겨레앞에 씻을수 없는 대역죄를 짓는것으로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문제를 걱정한다면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서서 이미전에 북남사이에 마련된 선언들과 합의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허 영 률

관계개선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

동족대결의 악순환을 끝장내기 위한 공화국정부성명은 지금 북남관계개선을 간절히 바라는 온 겨레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고있다. 조국강토가 외세에 의해 북과 남으로 갈라진 그때로부터 무모한 대결과 반목질시로 우리 민족은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당했는가.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대결의 울타리를 박차고 발전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때에 왜 우리 민족만이 귀중한 재부를 동족대결에 헛되이 소모하며 외세의 핵전쟁위협속에 불행과 재난을 겪어야 하는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 민족이 서로 힘을 합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오늘의 불행을 가시고 북남관계도 개선할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도 이룩할수 있다. 문제는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제안도 실천행동이 안받침되지 못하면 그것은 제안으로만 남게 될것이다. 무엇이나 마음먹기에 달렸다. 비록 어제까지는 불신하고 대결하였지만 오늘은 과감한 용단을 내리고 실천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

공화국정부성명에는 북남사이의 관계개선과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이 명시되여있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한 우리 공화국의 조치가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얼마나 만나고싶고 손잡아보고싶은 남녘동포들인가. 이제 우리 응원단이 남조선에 나가 《우리는 하나다!》를 목청껏 웨치며 다시한번 남녘땅에 화해와 통일의 기운을 고조시킬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쩌릿해진다.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이 남녘동포들과 함께 인천에서 고조시키게 될 화해와 단합의 열기는 온 삼천리강토를 또다시 진감시킬것이며 그것은 절대로 갈라져살수 없고 오로지 통일만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지향과 의지를 온 세계에 힘있게 과시하게 될것이다.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비서 강 청 석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로씨야에서

로씨야에서 3일 《로꼬뜨》운반로케트를 발사하였다. 쁠레쎄쯔크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된 운반로케트는 3개의 《고네쯔-M》통신위성들을 예정된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현재까지 《로꼬뜨》운반로케트는 도합 21차례 발사되였다고 한다.

항공우주방어군 대변인이 이에 대해 밝혔다.

이란에서

이란에서 현 이란년도가 시작된 올해 3월 21일부터 7월 2일사이에 수력발전소들에서의 전력생산량이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9.4% 늘어났다. 2일 이 나라 에네르기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란의 시스탄 발루치스탄주에서 올해 3월 21일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첫 3개월동안에 8t이상의 각종 마약을 압수하였다. 최근 주경찰당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또한 이란에서 3월 21일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첫 3개월동안에 원유를 제외한 제품수출량이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0.53% 증가하였다. 최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캄보쟈에서

캄보쟈에서 장애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사업에 관심을 돌리고있다. 3일 정부는 장애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 교육, 공공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이들을 우대해주는 등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다.

한편 캄보쟈에서 뎅구열방지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나라에서는 올해 상반년에 뎅구열감염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 줄어들었다고 한다. 4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웰남에서

웰남에서 올해말까지 220만개의 일자리를 조성할것을 계획하고있다. 특히 공업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마련되게 된다고 한다. 정부에서 계획실현에 많은 자금을 돌리기로 하였다.

시에라레온에서

시에라레온에서 최근 에볼라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전국비상그루빠가 조직되였으며 보건부문에서 환자격리 및 치료예방사업을 강화하고있다.

나이제리아에서

나이제리아에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공업을 비롯한 경제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풀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것이라고 한다. 최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미국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시위

이스라엘군의 공습만행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공습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3일 이스라엘전투기들이 이 지대의 북부와 남부지역에 10여차례의 공습을 가하였다. 이로 하여 6명의 사상자가 났다.

한편 이스라엘군이 6일 가자지대에 대한 공습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공습으로 2명의 팔레스티나인이 목숨을 잃고 1명이 부상당하였다. 이스라엘군의 이러한 만행은 현지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벨라루씨문제를 둘러싼 대국들의 암투

벨라루씨가 다시금 미국의 제재명단에 올랐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이 나라에 대한 제재를 1년 연장하는데 수표하였다. 그러고보면 2006년에 미국이 벨라루씨에 첫 제재몽둥이를 휘둘러댄 때로부터 제재는 언제 한번 철회된적이 없다.

2006년 벨라루씨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도입, 외부세력의 내정간섭을 반대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루까쉔꼬정부를 이미전부터 아니꼽게 보아오던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당시 선거를 정부전복의 좋은 계기로 삼았다. 그들은 벨라루씨에서 활동하고있는 비정부단체들을 통해 정치적반대파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주면서 소요를 일으키고 정세를 혼란시키도록 추동하였다. 반정부세력들이 정부기관들과 철도역들을 점거하고 국가기능을 마비시킬데 대한 각본도 짜놓았었다. 지어 루까쉔꼬대통령을 모해하기 위해 약 6만부나 되는 가짜신문들을 만들어 벨라루씨에 들여보냈다. 허나 그들의 불순한 기도는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선거자의 82.6%가 현대통령 루까쉔꼬를 지지하여 찬성투표하였던것이다. 벨라루씨중앙선거위원회는 루까쉔꼬가 대통령으로 재선되였다는것을 공식 선포하였다.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된 미국은 선거결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해나서다 못해 제재를 발동하였다. 이렇게 막을 올린 제재소동은 벨라루씨의 그 무슨 인권과 민주주의상황까지 거론하며 그 도수가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벨라루씨의 일체 자금을 동결시켰는가 하면 이 나라 기업들과의 경제거래를 전면차단해왔다. 벨라루씨지도부와 관련인물들에 대한 사증제한조치도 실시되고있다. 제재에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까지 발동하고있다. 어떻게 하나 현 벨라루씨정권을 교체하고 친미정부를 조작하자는것이 미국의 집요한 속심이다.

이것은 결코 벨라루씨와 미국사이의 관계문제로만 볼수 없다. 벨라루씨문제에는 전략적리해관계의 충돌로 빚어지는 로미사이의 암투가 짙게 비껴있다.

랭전종식후 이전 쏘련지역의 일부 나라들에서 《색갈혁명》으로 친미, 친서방정부들이 생겨났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이것을 리용하여 로씨야를 전략적으로 압박하고 세계지배야망을 손쉽게 실현하려 하고있다. 로씨야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다그치는 한편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서두르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

이에 비해볼 때 루까쉔꼬정부는 친로씨야정책을 실시한다고 할수 있다. 벨라루씨대통령은 로씨야를 희생시켜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없을것이다, 로씨야는 어제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전략적동맹자로 남아있을것이라고 한두번만 선언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코 외교적인 걸치레가 아니였다. 현실이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10여년전에 로씨야와 련맹국가를 창설하기로 결정한 벨라루씨는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중단함이 없이 련맹국가창설사업을 다그치고있다. 오늘날 련맹국가창설사업은 지역일체화와 밀접히 결부되여 추진되고있다. 독립국가협동체 나라들에는 관세동맹, 집단안전조약기구 등의 지역기구들이 있다. 2012년 1월부터는 로씨야, 벨라루씨, 까자흐스딴으로 구성된 단일경제공간이 정식 가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역기구들에 빠짐없이 가입하여 협조와 단합에 활력을 부어주는것이 바로 로씨야와 벨라루씨이다. 지난 5월 29일 유라시아경제동맹이 창설된것도 독립국가협동체안에서 주도적역할을 해온 로씨야와 벨라루씨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두 나라사이에 군사적협조도 눈에 띄게 강화되고있다. 벨라루씨는 로씨야의 서부지역과 국경을 접하고있다. 그런것만큼 로씨야에 있어서 벨라루씨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미싸일포위망을 견제하고 전략적안전을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벨라루씨 또한 안보분야에서 로씨야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로부터 두 나라는 군사적협조강화를 통하여 외세의 간섭과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해나가고있다. 단일한 지역반항공체계창설사업이 본격화되고있는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2009년 2월 두 나라 국가수반들의 참가밑에 두 나라의 령공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통일적인 지역반항공체계를 창설할데 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이 협정에 따라 벨라루씨의 낡은 반항공체계가 로씨야의 현대적인 체계들로 교체된다고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로씨야의 대공미싸일체계외에 기동전술미싸일종합체가 벨라루씨에 납입되는 경우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요소들의 전개로부터 오는 위협을 막을수 있다고 보고있다.

벨라루씨와 로씨야사이의 밀접한 협조관계가 대로씨야포위환을 형성하고 독립국가협동체를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려는 미국의 대외정책수행에서 골치거리로 되고있다는것은 론할 여지조차 없다.

사실 이전 쏘련지역 나라들에서 되살아나는 친로씨야적경향을 배제하고 이 나라들을 저들의 품에 깊숙이 끌어들이려는것은 미국이 루까쉔꼬정부에 대한 악랄한 압박공세를 벌리면서 노리는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하다. 최근년간 여러가지 지역기구들을 중심으로 독립국가협동체 나라들의 통합열의가 높아지고 로씨야와의 관계가 밀접해지고있는 사실은 미국의 술책이 먹어들어가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나라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모든 주권국가들의 응당한 권리이며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간섭책동이 횡포해지고있는 현시기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들이 군사, 경제적협조를 통해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경제적발전을 이룩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미국이 저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나라들사이의 정상적인 협조관계를 문제시하며 지역나라들사이의 관계에 쐐기를 치려는것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파렴치한 내정간섭행위이며 오만성의 극치이다.

벨라루씨를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간섭과 위협공갈, 경제제재책동이 악랄해질수록 그에 대한 로씨야의 반격은 거세여질것이다. 그런즉 벨라루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두 대국의 암투는 국제무대에서 표면화되는 로미사이의 힘겨루기의 축소판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배 금 희

ㄱ-41107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